금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에도 참된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남은 자들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2a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6월 17일 (토) 제 163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키 자라는 만큼 신앙도 자라길..."

2017 여름방학 맞은 크리스천부모들, 자녀들과 함께 보낼 방안 소개

'숙제해라, 게임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운동해라….'

방학이 되면 자녀와 '씨름'하는 부모들이 많다. 크리스천 엄마 아빠라고 예외일 순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크리스천 부모의 경우 캠프를 통해 자녀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신앙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키가 자라는 만큼 믿음도 쑥쑥 키울 수 있는 '성장 프로그램'을 부족한 학과목 보충에 '섬머스쿨' 그리고 SAT 준비 등등에 분주할 자녀들의 일정에 안성맞춤으로 집어넣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이에 많은 부모들이 여름방학을 포함한 일상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녀들의 신앙양육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자료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 아이들을 각종 캠프에 보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통 두 달 반 가까이 되는 미국 학교의 여름방학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안 가고 뛰어놀 수 있는 신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아이들 방학이라고 일을 쉴 수 없는 부모에게는 사실 여간 골치 아픈 기간이 아니다. 말이 좋아 방학이지, 여름캠프든 보충수업이든 아이를 어딘가에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부모의 재력 차이가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면에서 학교는 방학이 있는 반면, 부모라는 직업은 방학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방학일수록 더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게 부모의 임무이고 크리스천일 경우, 여기에 신앙 교육까지 병행해야한다.

자녀들과 씨름(?)할 여름방학이 가까워온다. 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은 영적으로도 성장 기회가 될 여름방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여름방학 동안 여행을 가는 것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녀가 개학 후 자신들의 방학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여행을 떠나고 또 사진으로 여행지의 모습을 담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많은 학교들이 개학 후나 학기 중간에 여행을 다녀온 것을 글로 쓰게 하는 프로젝트를 내주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 외에도 방학을 이용해 먼 곳에 떨어진 친척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좋다고 교육자들은 설명한다. 여행이나 친척 방문을 하기 위해 타주나 타국을 떠나게 될 경우는 미리 그곳의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게 한다면 산교육이 된다. 또 방문한 곳을 비디오나 사진으로 남기고 특히 방문한 친척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두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단기선교 여행도 포함된다.

현장 학습

자녀와 함께 방학기간 동안 박물관, 극장, 동물원, 도서관, 식물원, 콘서트홀 그리고 유적지를 방문해 본다. 뉴욕이나 LA와 같은 대도시 근교에는 대부분 생생한 문화가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생물의 표본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문화의 공간이 많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현장 학습을 할 정보를 모으다 보면 예외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시나 카운티 박물관이나 예술 센터가 많다. 따라서 '발품'팔듯이 인터넷 서핑을 자녀들과 같이 해본다.

인터넷 관리

방학 때가 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종우월주의 또는 인종편견을 조장하며 탈선을 부추기는 웹사이트는 물론 각종 게임 사이트에 자녀들이 중독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수 없는 만큼 인터넷 사용 시간, 접속 사이트 주소 등이 저장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대 컴퓨터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지정해놓고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6면으로 계속〉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 비춘다!

CT, 인신/성 매매로 어두운 캄보디아에서 희망의 씨앗 심는 크리스천들과 NGO 활약상 보도(중)

경찰차들이 화이트 빌딩 앞 녹색 금속 판잣집 옆에 줄지어 멈춰 선다. 화이트 빌딩은 가난한 아티스트, 성노동자, 마약 밀매업자들이 뒤엉켜 있는 음습한 풍경을 가리기 위한 프놈펜 주거 프로젝트다.

경찰은 인신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악명 높은 이 성매매 촌을 처음으로 급습했고, 소규모 성매매를 사주한 여성업주 3명을 체포했다.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세 여성은 수갑을 찬 채로 로비 대기 의자에 앉아 있다. 로비 뒤쪽에 원룸이 있고, 나무 사다리를 올라가면 방 두 개가 나온다. 방마다 싱글침대와 탁자가 있다. 천장이 낮아 기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깨를 드러낸 반짝이 옷이 어슴푸레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일하던 미성년 소녀 6명이 흰색 경찰 밴에 실린다. AIM 사회복지사들이 그들과 동행한다. 밤새 그 희생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곤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원하면 안전한 쉼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대체로 이런 소녀들은 띠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자기 생일을 모른다. 이날 구조된 가장 어린 소녀는 말띠라고 했다. 13살이나 14살 밖에 안 된 나이다.

이날의 급습은 성매매와의 전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가해자들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어린 희생자들의 구출이 그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현실, 현대판 노예 비율에서 세계 3위는 우리가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신매매는 사슬에 묶여 있는 소녀들이 전부입니다." AIM 구조팀("SWAT 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의 조사 매니저인 앤디 발락은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슬들과 부모의 압력이 존재합니다."

캄보디아의 많은 어린 소녀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동의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든다. 가라오케 바와 술집이 늘어선 길을 따라 걷다보면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성매매 일터에 떨어뜨려 놓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나름 온정이 있다고 하는 선진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약 200만 명의 아동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단연코 성매매를 종식시키고 아이들을 해방시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현대판 노예제 폐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더 폭넓은 이해를 촉구한다. 구조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는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매음굴에서 20명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20명을 더 고용할 것입니다." 차브 다이(Chab Dai)의 설립자 헬렌 스원의 말이다. 차브 다이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회복을 위해 일하는 50개 단체의 연합체다. "이것은 2-3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차브 다이 회원 단체들(IJM과 AIM도 회원단체다)은 성매매 업소 단속을 뛰어넘는 목표를 세웠다: 캄보디아의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의 제도들을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감동적인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훈련 세미나와 서류 작업, 후속절차는 지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런 (NGO 용어로) "역량 형성"은 성매매업소와 길거리의 사춘기 소녀들을 구출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에서 성인 성매매 역시 불법이지만 번성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자녀양육,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한다!**

시 론

목메달 시대를 살아가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언제부터인가 이런 우스운 단어가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딸을 둘 낳고 아들을 하나 낳으면 금메달, 딸을 둘 낳으면 은메달 그러나 아들만 둘 낳으면 '목메달'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에 대한 선호사상이 시큰둥하게 바뀌었음을 세태가 보여줍니다.

오래 전 기계문명의 발달이 없었을 때,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노동력이었습니다. 머리는 명석하지만 체격이 약한 남자들과 여성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시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더 많이, 더 오래 동안 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여성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남아선호(男兒選好) 사상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아무래도 근육질 발달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들의 가치가 여성들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남성들의 특유물인 '근육'의 가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사무실에서 자료들을 정리하며 따뜻한 정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난 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남성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따뜻한 성품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공간지각능력, 쉽게 말하면 낯선 길을 파악하는 능력이 여성에 비해 뛰어난 반면 여성들은 분석을 하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데 남성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분야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위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지성지수(IQ)와 감성지수(EQ)에 있어서도 여성들에게 유리한 면이 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연구에 의하면 지성지수(IQ)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거의 동등하게 나타나는 반면 감성지수(EQ)는 여성들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지성지수(IQ)가 너무 좁은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반면에, 감성지수는 현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성지수(IQ)가 높으면 학교성적을 잘 받는데 유리하고 감성지수(EQ)가 높으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성지수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감성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런 통계가 오늘날 여성들이 직장에서 남성 못지않거나 혹은 더 뛰어난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의 분야에서도 여성들에게 유리한 영역이 보입니다. 부모입장에서는 남자아이들에 비해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양육하기에 쉽기 때문에 부모입장에서도 여자 아이들을 더 원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초, 중등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의 60%가 남자 아이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핀란드의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수명이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수명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상담을 원하는 부모들의 70%가 아들을 둔 어머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 키우기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들만 둘 낳은 어머니들을 향해 '목메달'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암기위주의 학교교육도 여자 아이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쉽게 싫증을 내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반복해서 학습해도 곧 잘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교실에서의 학업성적인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보면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져 가는 곳이 남성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남성들이 없으면 어찌 여성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 간다면 더 이상 남성의 아픔은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날(Father's 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의 날에는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과 시대 속에서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c`hoi82@yahoo.com

정확한 정보수집해서 활용...과잉대응 피해야

뉴스위크, 메릴랜드대학 부설 국제테러연구소 라프리 교수팀의 테러 대응전략 장애요소 소개

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최우선 현안은 테러리즘이다. 미국인들은 경제나 교육, 일자리, 의료비용보다 테러를 막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응답했다.

뉴스위크는 따라서, 지난 12년 동안 메릴랜드대학 부설 국제테러연구소(START) 소장으로 동료들과 함께 테러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게리 라프리(Gary LaFree)교수팀이 197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테러 공격 데이터들을 모아 만든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GTD)'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테러대응 정책 수립에 장애물이 되는 6가지 현안을 짚어보았다(6 reasons why stopping worldwide terrorism is so challenging).

6월 4일, 런던 다리 테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1. 테러는 드물다

대부분의 지역과 시기에서 테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게 일어난다.

근년 들어 미국이 겪은 테러는 25건도 안 된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살인과 강도 사건은 각각 약 1만3000건, 36만 건이다. 세계 전체로 볼 때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테러에 인한 사망자의 약 100배나 된다.

알카에다 같은 악명 높은 테러단체의 공격도 상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드물다. GTD에 따르면 알카에다의 공격은 지금까지 모두 합해 59건이었고, 2008년 이후는 5건에 불과했다. 테러가 그처럼 드물다는 사실은 통계적인 분석으로 보편타당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내 테러위협은 일회적이고 산발적이며 일관성 없어
배후 가리기 힘들고, 단체가 가지각색...발생 빈도 낮아

2. 대규모 테러는 더 드물다

테러도 드물지만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 공격은 더욱 적다.

GTD에 집계된 1970년 이래 모든 테러공격 중 절반 이상에서 사망자가 없었다.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는 전 세계에서 17건에 불과했다. GTD에 집계된 전체 테러공격 15만6000여 건 중 거의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가 현대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9·11을 제외하면 지난 약 반세기 동안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 중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거기에 가장 근접한 공격이 1995년 티머시 맥베이가 단독 감행한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로 당시 168명이 사망했다.

테러대응 정책은 크게 눈길을 끌지 못하는 수천 건의 작은 사건보다 극히 드물고 독특한 소수의 대규모 공격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치명적이면서도 아주 특이한 공격 몇 건이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사례에 기초한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3. 예방책이 갈수록 나아진다

사전 모의 단계에서 저지되는 테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명을 구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테러 대응정책 입안자들에겐 위협의 실질적인 중대성에 관한 정보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뜻이다. 테러가 실행되기 전에 모의자들이 체포되기 때문이다.

4. 테러단체는 가지각색이다

테러단체는 아주 다양하다. 그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다.

사람들이 테러단체를 생각할 때는 주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알샤바브처럼 조직을 잘 갖췄고 널리 알려진 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에선 테러 단체를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쪽 극단엔 테러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외로운 늑대'가 있다. 다른 쪽 극단엔 오랜 기간에 걸쳐 활동하는 고도로 조직된 단체가 있다. 그런 단체는 지휘체계가 확실하며 확고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이끈다. 그 양 극단 사이에 느슨하게 연결된 소규모 단체와 잘 알려지지 않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네오나치나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그 예다. 그 모든 이질적인 집단은 안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특징을 갖는다.

GTD에서 확인된 2300개 이상의 테러조직 중 거의 70%는 1년도 못가 사라졌다. 테러집단은 스타트업(IT 신생업체)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대부분은 설립 첫해에 폐업한다는 뜻이다. 확실한 지도자와 지휘체계, 확인 가능한 대원을 가진 조직집단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조직되지 않고 확실한 지도자도 없으며 대원도 불분명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연계관계와 목표를 가진 집단을 상대하는 것은 훨씬 복잡하다.

5. 배후를 가리기 어렵다

테러공격의 배후는 모호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GTD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 이래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만 건의 테러 중 거의 60%에서 배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때는 특정단체에 연계되지 않은 '외로운 늑대'가 공격을 시도한다. 하나 이상의 조직이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공격인 데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는 다른 단체의 소행이라고 허위로 밀어붙이기도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 비춘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활동가들과 기관들은 주로 미성년 성매매 희생자에 초점을 맞춘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사법 체계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법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IJM의 글로벌 애프터케어 부대표이자 IJM 캄보디아의 이사였던 크리스타 샤프는 말했다. "소아성도착자들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신매매 사건을 처리할 충분한 자원이나 동기를 얻지 못했다. 체포 후 일처리도 매우 엉성했다. 이를테면 혐의 사실을 알리고 진술을 받아내기까지 여러 날이 걸렸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을 옆에 그대로 두고서 희생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보 단계부터 시작해 훈련 모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어떻게 용의자를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형사 사건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인신매매근절 전국연합에서 국제협력부서를 관장하는 석 릭스메이는 말했다. 인신매매 단속 공무원이었던 그는 캄보디아의 소수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기독교 NGO의 "적극적인 동참"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법 집행과 사회복지가 강화되자 대중도 서서히 경찰을 신뢰하고 더 많은 사례를 제보하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샤프가 캄보디아에서 처음 활동할 때만 해도 인신매매 퇴치운동은 NGO가 주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법 제도가 개선됐고 성매매업소에서 어린 소녀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확신이 들자(조사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0.1%), 캄보디아 인신매매 근절 운동을 주도한 IJM은 2015년에 아동 성매매 퇴치운동을 종료했다. 대신에 IJM는 지난해 이 나라에서 새로운 노동착취 근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절박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저임금 작업장의 노동착취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AIM이 베트남인 밀집 지역인, 인구 1만 명의 스바이 팍에서 공동체 구축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캄보디아의 아동 성매매에 연루된 베트남 범죄조직과 연계돼 있다(차브 다이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은 캄보디아 인구의 5% 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 애프터케어 시설에 있는 소녀들의 60-70%가 베트남인이다).

AIM은 소녀들이 팔려오는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한다. 딸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가족들의 그 어떤 "변명"에 대해서도, AIM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키즈 클럽이나 커뮤니티 스쿨, 성인 영어 클래스에 보내라. 급한 환자가 생겨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무료 진료소로 오라. 직업이 없다? AIM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200명의 근로자들이 판매할 카디건과 티셔츠를 바느질하고 있는 AIM의 의류공장에서는 평균 임금의 2-5배를 지불하고 무상보육도 제공한다.

가게가 딸린 킥복싱 체육관은 포주, 브로커, 가해자들을 불러 모아 훈련시키고, 신실한 남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시합도 치르게 한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인신매매나 기타 범죄 행위로 체포됐을 때, AIM은 그 가족들이 단기 쉼터에 머물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생계를 돕는다. 마약 딜러를 포함해 길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AIM 캄보디아 지부장 클레이튼 버틀러는 말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말입니다." (그는 크메르어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무엇을 파십니까? 메쓰(신종 마약)?") "이곳에서 오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나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강해집니다."

AIM을 설립하고 2005년에 스바이 팍으로 온 미국인 돈 브루스터 목사는 경찰이 집중단속을 하자, 인신매매업자들이 법망을 피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달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큰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도 성매매 업주는 하루 밤에 10-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소녀들을 통해 1년에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린다.

"인신매매 퇴치운동이 성공을 거둘 때마다 인신매매도 진화하고 그 행동양식도 달라집니다." 브루스터 목사는 말했다. IJM이 성매매 근절 활동을 접은 것은 이 지하산업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캄보디아인 정보제공자 및 비밀조사원 네트워크를 통해 AIM은 지난 몇 년 동안만 해도 100명 이상의 미성년 소녀들을 되찾았다. 이 구조팀은 인신매매업자들이 (예를 들어 고급 이발소나 슈퍼마켓 같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장소를 경유한다는 사실, 소녀들을 여러 장소로 돌려가면서 일을 시킨다는 사실, 몸값이 높은 아주 어린 소녀를 제공하기 전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감시자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성매매업자들의 이런 전략 때문에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다.

AIM 구조팀장 멜 드럼은 프놈펜의 음습한 톤레삽 강을 따라 이어지는 관광거리를 벗어나 몇 블록도 채 못 갔을 때, 그들이 급습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곳들을 가리켰다. "저 근사한 레스토랑, 저 살롱 뒤쪽, 저 맥주집입니다."

2015년 캄보디아 성매매 현장 급습의 절반 이상을 그의 팀이 했다. 탱크 탑에 짧은 치마를 입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안마시술소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객을 기다리면서 폰을 스크롤하거나 수다를 떨고 있다. "남자들은 "호스티스" 바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여자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남성의 약 70%가 성매매를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여행자 웹사이트는 외국인들에게 원하는 여러 가지 성행위를 크메르어로 번역을 해주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흥정을 할지 조언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성매매를 하는 사춘기 소녀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소아성도착증자들의 천국도 아닙니다. 이것은 큰 발전입니다." 전직 영국 형사인 멜드럼이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으로 살 여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호에 계속〉

정확한 정보수집해서 활용...과잉대응 피해야

〈2면에서 계속〉

순전히 정보 부족으로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지 못하거나 상반되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테러공격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정부는 배후를 색출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을 때는 테러범을 처벌하거나 차후의 테러공격을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6. 효과적인 대테러 전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즘의 과학적 연구에선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테러대응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상태다.

테러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테러대응을 위해 정부가 채택하는 전략을 평가하기는 더욱 힘들다. 각국 정부는 테러대응 정책과 전략을 극비에 부친다. 따라서 테러대응 전략과 그 효과에 관한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테러위협은 일회적이고 산발적이며 일관성이 없다. 정책은 대부분 실제로 예상되는 위협보다 두려움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테러리스트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지난 1월 처음엔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자 3월 6개국으로 범위를 좁혔고 그마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런 결정을 뒷받침할 경험적인 증거는 없다. 미국 입국을 금지하려 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의 국적자가 미국에서 치명적인 테러공격을 감행한 적은 없다.

더구나 이런 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9·11 직후의 혼돈상태에서 통과된 미국 애국자법은 '테러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법집행 관리들은 곧 그 법을 마약 등 테러와 상관없는 범죄까지 확대했다. 그런 확대는 사생활 보호와 연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정직하게 활용하며, 과잉 대응을 피해야 한다.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공간에는 사망의 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 말들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마다 죽음의 잔을 나누며 살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영적 어둠이 올 것이며 영적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암8:11)"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러한 때 생수를 공급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흐르고 있다. 그 말씀이 계속하여 사망의 땅에 흐르게 하여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야 한다.

세상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흐르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말이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이 강을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망의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요 사망에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 에스겔 47장에서 보이신 환상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생명의 말이 사해를 흘러 내려 들어가서 그 사해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 주변의 나무를 살리고 물 가운데 있는 고기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생명의 물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 환경을 살리고 우리 생애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뿐이다. 그 생명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흐르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넘쳐흘러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넘쳐흘러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죄가 흘러 나아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망의 생각을 잉태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망의 생각이 마음에서 성장하지 않도록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입에서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죄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입에서 모든 것을 죽이는 죄가 흐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깨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넘치게 받는 일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그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흘러 말을 통하여 흐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영적 기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내 말이 아니다. 세상의 즐거운 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여전히 흐르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사람의 마음이 기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이 되라.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였더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나오고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므로 인하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고넬료에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보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흐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사람으로 충성하라.

sangdkim@yahoo.com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없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프로그램 입니다.

남가주 지역교회를 섬기는

제2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모집기간 1차 - 6월 18일(주일)까지 / 2차 -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등록비 무료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출석교회의 담당 교역자나 담임목사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관및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 행복한교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6-7)

우리 인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과 근심의 연속인 듯합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느냐고 물으면 딱 부러지게 할 말도 없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염려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참 행복하다 싶은 사람도 가까이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 남모르는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 문제, 장래문제, 사업문제, 인간관계... 문제도 많고 걱정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0불을 가지면 이럭저럭 몇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100불이라도 몇 가지 사다보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우리들의 삶이 걱정근심의 삶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염려 덩어리를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신앙이 좋은 여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남편이 췌장암인데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말을 듣자 그 집사님은 충격을 받고 그만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의 손엔 성경 찬송가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성경을 챙겨 가지고 갈 만큼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큰 염려와 근심 앞에 서면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염려와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다는 말은 걱정 근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염려와 걱정근심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 놓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근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걱정근심대신 감사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척척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도는 염려 근심할 일이 있어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근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생겨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까? 근심 중에도 걱정 중에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근심은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염려로 무슨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염려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 6:27)"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벗는 길은 확신한 신앙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모두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무리한 나머지 병이 들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온 몸이 퉁퉁 붓기도 했습니다. 투병생활이 계속 됐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는 회복됐습니다.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요즘도 소변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다보니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빼앗긴 시선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염려가 염려가 안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기도에다가 '간구'까지 덧붙였을까요? 여기 나오는 간구는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염려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되 염려가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전거 타기를 배우려고 할 때 걱정되는 일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져 다칠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붙들고 가르치는 사람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붙들어 줄테니 너는 페달을 밟기만 해라" 그리고 페달을 밟아 자전거가 앞으로 굴러갈 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페달을 돌리는 일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인줄 다시 한 번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해선 안 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하늘을 향한 목마름에 헐떡여라-말틴 루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개인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삶의 진로를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돌리도록 역사 하신다.

세미나의 강사로 오신 분의 간증은 가슴을 뜨겁게 하였는데, 그는 학창시절 수재였다고 한다.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탁월했기 때문에 여러 교수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청빙도 있었고.... 그러나 자신이 가는 길은 제자를 삼는 길임을 알았기에 평생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기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신다.

말틴 루터 역시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었고 충분한 자질도 지니고 있었다. 그는 1502년에 인문학 학사 학위와 1505년에는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의 큰 기대와 당시의 흐름에 걸맞도록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 에르푸르트 대학 법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개천에 용이 날 것이라는 기대로 광산업을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문서적을 아낌없이 루터를 위해 지원했다.

루터는 학기 중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학교로 돌아가던 1505년 7월 2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친구와 함께 스토테른하임(Stotternheim)의 널따란 들을 지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내 큰 폭우가 쏟아지고 땅을 흔드는 천둥과 번개가 대지를 환하게 밝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쳐 대처할 길이 없었다.

은신처가 전혀 없는 한적한 들판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중에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내려친 번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옆에 있던 친구를 즉사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친구였다. 함께 대화를 나두던 친구의 죽음 앞에 루터는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인가? 삶의 의미가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루터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황이었다. 당시의 관습으로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으니 루터의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루터는 너무 두려워서 광부들의 수호성인이요, 마리아의 어머니인 성 안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서원했다.

"저를 도와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루터는 서원한 대로 1505년 7월 16일 법률학교를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갔다. 벼락을 통한 서원을 두주 만에 실행에 옮긴 셈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루터를 부르신 방법이었다.

그런데 막상 수도원에서의 루터는 영적 기쁨이 없었다.

세상의 영광과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을 물리치고 서원을 이루기 위해 들어온 수도원이었다. 그런데 매일 기도와 시편 묵상, 독서 기도문 암송을 하고 늦게 취침에 들어가는 일상은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 마음은 계속 허전하고 공허감이 그를 힘들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남은 죄 때문이라고 여긴 루터는 자신의 육체를 심하게 학대했다. 금식도 하였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더욱 더 성경에 몰두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확신의 말씀을 탐구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 공허하기만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 어거스틴, 또한 요한 웨슬레 역시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무수한 정신적 방황을 견디어내야 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

말틴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먼 로마를 방문하기로 했다. 가톨릭 성도들에게는 '전대사'란 제도가 있다. 한 마디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제도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으로 여긴다.

루터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에 목말랐는지 모른다. 두려운 하나님만 기억하였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은혜와 공로를 함께 가르쳤다. 그러나 당시에는 오히려 공로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것은 교황이 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헌금만 드리면 전대사는 쉽게 하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기경을 한꺼번에 여러 명을 뽑기도 하였고, 또는 전대사를 남발하기도 했다. 오직 모금을 위한 목적으로 말이다.

교황 레오 10세는 31명도 더 되는 추기경 자리를 만들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다. 심지어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한 면죄부도 팔았고, 이미 죽은 친척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면 그들이 사후에 연옥에서 보내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했다. 죄는 개인이 짓고 죄 사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직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말틴 루터는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였고, 라테란 성당과 성당 옆에 있는 산타 스칼라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 계단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옮겨온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셨던 28개의 대리석 계단이다. 그 계단을 닳지 않도록 나무를 덧씌워 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며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가 용서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그대로 해보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수도사 말틴 루터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이처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작 바티칸의 최고의 수장 교황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말틴 루터는 로마를 방문한 후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더욱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교황은 율리오 2세였다(Julius Ⅱ.503-1513). 그는 교황이라기보다는 군인이었다. 그는 여러 번이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투에 참가할 정도였다. 페루자와 볼로냐를 손에 넣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도 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권모술수로 전쟁을 일으킴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양산했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대신 분요와 어지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의 사도가 전쟁을 좋아하였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는 또한 동성애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다. 그가 한 일 중에는 영국의 헨리 8세가 그의 형 아서의 부인이었던 캐서린과 결혼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한 일이다. 그리고 라파엘과 미켈란젤로를 고용하여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했다는 점이다. 미켈란젤로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나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니라는 항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이 자주 다투었다고 하나 일설에 의하면 그들은 연인 사이였다고 한다. 교황 율리오는 이미 추기경 시절에 세 명의 딸을 둔 사람이다. 이렇게도 정욕에 눈이 먼 사람에게서 어떤 영적 품성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타락된 문화가 로마를 뒤덮고 있는 음습한 현상을 보고 루터가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까는 충분히 상상이 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루터를 위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크게 결단하게 하시려는 과정의 시간들이었던 셈이다. 의분이 클수록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다른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당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율리오 교황처럼 세상의 탐욕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이 있다. 이 시대 루터처럼 하늘을 향한 목마름에 헐떡거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싶다. 그것은 참으로 복된 길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루터가 벼락으로 친구를 잃은 장소. 맨 오른쪽이 필자.

chiesadiroma@daum.net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고등학교 여자트랙 경주를 압도한 "성전환 남학생"의 승리, 과연 진정한 승리인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성별 차별금지' 법안이 행정명령으로 통과된 이후, 성차별금지 정책은 엄연히 몸 구조가 다른 남녀 운동 경기에서 남녀 학생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학부모들뿐 아니라 경주하는 학생들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코네티컷 주 고등학교 트랙 여자 경주에서 한 성전환자 남학생이 여자로 경주하여 1등을 차지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상으로 볼 때 만일 이 학생이 남학생들과 경주했다면 꼴찌를 했을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Andraya Yearwood는 Cromwell 고등학교 9학년 학생이며, 그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현재 여자로 성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역 여자 100미터 달리기에 12.66초 그리고 200미터 달리기에서 26.08초로 1등 차지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육상 기록!

같은 시기, 지역 남자부 달리기에서 꼴찌로 마친 선수 2명이 100미터에 11.73초 그리고 200미터에 25.59초였습니다.

하지만 꼴치를 한 두 남학생들은 둘 다 Yearwood가 낸 기록보다는 빨랐습니다.

즉, 만일 Yearwood가 남자부 경주에서 시합을 했었다면 그가 100미터와 200미터에서 모두 다 꼴찌로 마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 스포츠인들의 예상입니다.

Yearwood는 여자 경기에서 자신이 이긴 것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 둘 다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항상 1등(여자들 경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다. 내 스스로가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흥분한 어조로 말했고, Yearwood의 육상 감독 Brian Calhoun은 "그녀는 팀의 일원으로 매일 열심히 연습했다. Yearwood는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칭찬했습니다.

Yearwood나 육상감독이 사람들과 나누기를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월 그가 경기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Yearwood는 아직 성기 수술도 하지 않았고 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는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인 그가 "여자"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까지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이며 속히 바뀌어야 될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네티컷 주의 고등학교 운동 경기를 감독하는 Connecticut Interscholastic Athletic Conference(CIAC)는 몇 년 전부터 선수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운동 경기에 성별 차별을 두는 것은 미 연방정부와 그를 따른 주정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부모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Yearwood의 어머니인 Ngozi Nnaji는 아들이 여자로 경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비록 아들로 태어났으나 "딸"로 열심히 연습해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전환 운동가들의 케이스…

2014년부터 오바마정부에 의해 누룩처럼 번져나간 성전환자 특별보호 정책/문화로 인해 미국 역사상 지난 몇 년 동안만큼 성전환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청년들이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으며 그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신적 아픔도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런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여럿 있기에 이제는 세계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세대들까지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남자로 태어난 Laurel Hubbar(본명 Gavin Hubbar 39세)이 지난 3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세계 챔피언십 여자 역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를 대표해 역사상 최초의 트렌스젠더이자 승리를 거둔 기록을 남겼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Ice Wangyot가 2016년 6월 알라스카에서 열린 여자 트랙 경주에 최초의 트랜스젠더로 참여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Robert John Ludwig(50세)가 성전환하고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커뮤니티 칼리지 여자농구팀에 들어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8피트에 220파운드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인데, 2012년에 여성으로 바꾼다고 발표 후 여성농구팀에 들어온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강한 것은 상식인데 운동 경주에서까지 성전환자들의 참여가 합법화된 지난 몇 년 이후,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큰 혼동을 줄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마저 타협하게 만들고 있는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결론 및 기도제목

Yearwood 학생의 케이스도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뛰어난 성적이 나온 것에 본인과 가족, 그리고 학교가 흥분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일 것입니다.

Yerwood에게 여성 호르몬 치료가 지속되면 자연스레 운동 능력이 감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나 친구의 관심도 떨어지게 될 때, 어린 Yerwood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혼돈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더군다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게 될 자신의 진짜 성별과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까지 더하게 된다면 지금 Yearwood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과 자랑스러워함보다는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정신적,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그를 멋진 남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게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Yearwood의 엄마와 Yearwood 같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확립할 수 있도록, 그들 주위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쳐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맞도록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먼저 주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확립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하시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Tvnext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컨퍼런스와 아카데미를 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은퇴했고 다 페이 오프(Pay off)한 집도 가지고 있고 연금으로 노후를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60대 말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노인의 삶으로 조용이 살기에는 아직 힘이 있고 주님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실비치에서 김

A: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주로 3부류로 나눕니다. 65-74세를 노년초기, 75-84세를 노인 중기, 85세 이후를 노년 후기로 구분합니다. 현대 의학과 수술 덕분에 우리 몸의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 것이 사실이며 의학자들은 인체의 평균 수명이 거의 120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 후기의 4명중 1명은 모종의 치매에 걸려 있으며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올바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은 우리가 완주해야 할 경주의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경주의 마지막 한 바퀴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한 바퀴를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패커(J.I. Packer) 교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으로 유명하고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노년"(Finishing our course with joy)이라는 책에서 토마스 캔(Thomas Ken)의 권고를 3가지로 권면합니다.

새로운 기회 노년, 겸손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째,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그날그날 계획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주님과 보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내면의 영적 건강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공상과 끝없는 향수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노년의 삶을 "편히 쉬라, 천천히 하라, 여유를 부리라, 재미있게 살라, 당신을 즐겁게 하는 일만 하라, 당신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왔고 생존경쟁에서 벗어났다"며 이제 실컷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소위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으로 인생의 노년을 보는데 패커 교수는 이것은 우리 시대의 지독한 우매함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런 관점은 게으름과 방종과 무책임을 노년기의 목표로 처방한다고 비판합니다.

노년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J.I. Packer 교수는 4가지로 말합니다. 1)새로운 기회이다. 경주의 마지막 중요한 한 바퀴인데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70이 넘으면 기동력이 없다는 것은 요즘세대에는 한물간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70이 넘어도 10년은 더 그리스도를 위해 원기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2)신앙 인격적으로 보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잘 익은 과일과 같아야 합니다. 노년기는 균형감각과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젊은이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3)겸손입니다. 노익장 그리스도인은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겸손해야 합니다. 4)열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정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해 일하십시오. 몸이 나이로 인해 느려지는 것을 느끼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주위의 전도와 선교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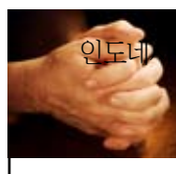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인도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부올(Buol)

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또한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 문화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며 부올(Buol)족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300개 이상의 여러 민족들 중 하나다.

인구수 82,000명의 부올은 '고론탈로(Gorontalo)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일찌기 술라웨시(Sulawesi)섬의 페닌술라(peninsula) 북동부를 따라 곳곳에 흩어져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게 모양의 섬은 일반적으로 산악지대이며,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되었다. 전형적인 열대 우림 기후도 이 섬의 특징이다. 술라웨시(Sulawesi)는 필리핀 바로 남쪽 태평양상에 위치하고 있다.

부올족의 땅은 소소한 왕국의 존립과 패망의 역사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이러한 왕정이 때때로 더 크고 강력한 군대 형태를 갖춰 전쟁 때 여러 번 함께 대항하기도 했다. 그들의 단일연합은 그들의 적들로부터 승리를 얻어 안전을 도모하게 했다.

삶의 모습

부올족이 사는 곳의 동쪽에는 미나도(Minado) 섬이 있고 이 곳에는 이웃 미나하산족(Minahasans)이 있다. 미나하산족은 네덜란드에 의한 식민지와 크리스천 교육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기독교화 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올족에는 독실한 무슬림들이 남아 있었기에 대부분 복음화 되지 않았다. 이 두 그룹들 사이에서는 편견에 의해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지인에 의한 부올 교회는 없으며 지방 크리스천들은 박해가 무서워 부올족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쌀, 옥수수, 야자열매가 부올족의 주식이며, 열대산 마과에 속하는 얌과 곡물은 부차적인 농산물이다. 코코넛은 상업성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덫과 작살로 호수에서 낚시하기도 하고, "라탄"(야자의 일종)과 "다마"(목재용 삼림)를 수집해 팔기도 한다. 소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말은 사람이 타는 데 사용한다.

인도네시아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8백만 명 이상의 농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바섬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땅과 집과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부올족의 결혼식은 이슬람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중매쟁이에 의해 연결된다. 중매쟁이는 신랑을 위해 신부의 값을 협상하는 책임을 지는데 신부 쪽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진다. 또한 고종 또는 외사촌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때론 친사촌끼리 결혼하는 일도 발생한다. 결혼한 후, 부부는 일반적으로 첫 아이를 낳기까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 후에는 부모를 떠나 그들 스스로 독립된 집을 갖는다. 부부는 각기 자신의 재산을 구별해 소유하되, 단 결혼 후에 획득한 땅은 서로의 공동 재산이 된다.

신앙

이슬람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지배적인 종교이고 전체 인구의 거의 85%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모든 부올족이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례의식과 행동양식에 몇 개의 종교가 섞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힌두교는 인도네시아인의 2%로 집계돼 있으며, 약 8%가 개신교도로 알려져 있다. 살아있지 않은 모든 물체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애니미즘)"신앙은 먼 지역의 부족들에게 남아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올족에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들이 조금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교회성장이나 전도에 필요한 기독교 자료들이 거의 없다.

현재 기독교 영화나 부올족의 언어로 된 방송은 없으며, 부올족을 위해 사역하는 하나의 선교단체가 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은 1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슬픈 것은 그들의 부족어로 된 기독교 복음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부올족은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무슬림 인구들은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행사하여 기독교가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고 크리스천들의 영향이 일반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필리핀 무슬림, 참수 위기 크리스천 64명 구해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한 무슬림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살해될 위기에 처한 크리스천들의 목숨을 구했다.

미국의 가톨릭 매체인 '처치 밀리턴트' 등 외신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에 사는 무슬림 누어 룩만(사진)이 지난달 22일 무장반군 마우테가 정부군의 공격에 맞서 도시 곳곳에서 살인과 납치를 저지를 때 이웃 크리스천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마우테는 2015년 IS에 충성을 맹세했다.

룩만은 마라위 시에서 탈출한 후 "크리스천들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그들을 도와줄 책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은 내 집으로 몸을 숨겼다. 64명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무사하길 바랐다"며 "반군들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지키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룩만은 "반군들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내가 무슬림인 것을 보고 떠났다"면서 "그들은 내가 크리스천들을 숨기고 있는 줄은 몰랐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모두 죽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뒤 군에 구조된 한 소녀도 "집 안에 크리스천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모두 죽였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마우테는 지난달 22일 마라위 시의 가톨릭교회를 공격해 예수상을 부수고 불을 지른 뒤 신부와 수녀 등 15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3일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마우테를 쫓아내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정부군과 마우테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라위 시민들은 대부분 탈출했으나 일부는 내부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라위 시에서는 지금까지 1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240여명이 인질로 잡혀갔다. 민다나오 섬은 7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며 약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매티스 "북한, 미 안보 가장 위협…"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 안보에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 책임자가 공개석상에서 '전쟁 대비'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북한의 존재가 현실적 위협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12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은 미국 안보에 가장 임박하고 위험한(most urgent and dangerous)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전쟁 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1953년(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쟁이 될 것"이라며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떤 수준이 전력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전쟁은 아주 아주 심각한 전쟁(very very serious war)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 올 여름까지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할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명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 품목'을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을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은 5233개이지만 대부분 소유 구조가 겹쳐 규모가 큰 10여개 기업과 개인의 거래를 차단해도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폐쇄 위기 미국교회들 '뭉쳐야 산다'

교인 감소와 재정 축소에 직면한 미국 교회들이 통합에 나서고 있다. 코네티컷 주 워터베리 시 시온루터교회와 제일루터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지역 방송인 '뉴스8'이 최근 보도했다.

두 교회의 통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폐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내린 결론이었다. 제일루터교회 캐시 리드 목사는 "교인들과 교회에 필요한 일이 뭔지 고민하면서 함께 모이는 게 정답이란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제일루터교회는 2014년 교회 성도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닥쳤다. 교회 건물 유지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 곤경에 빠진 제일루터교회에 손을 내민 건 같은 지역에 있던 시온루터교회였다. 이들 교회는 같은 해인 1891년 설립됐다. 각각 스웨덴과 독일의 루터교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였다.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같은 루터교 소속 교회였지만 교인들의 맘고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 목사는 "서로 다른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 취향도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시온루터교회 성도인 블랑쉬 피로도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다"면서 "우리 중 누구도 일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교회는 마침내 설립 126년 만인 올해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Cross of Christ) 루터교회'란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리드 목사는 "워터베리의 많은 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기쁘게 말했다.

교회 간 통합은 미국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위스콘신 주 라신 시에서는 1년의 준비 끝에 성 앤드류루터교회와 성바울루터교회, 시온루터교회 등 3개 교회가 통합했다. 이들 교회 역시 교인이 줄고 건물 유지비용 때문에 빚이 불어나는 상황을 겪었다. '교인 감소→ 재정 감소→ 부채 발생→ 교회 통합' 이라는 패턴이 이곳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의 로마가톨릭교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 대교구는 지난 50년 동안 교구민이 25%나 감소해 더 이상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 교구 구역 내 200개 교회 중 150여 교회를 다음 달 29일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파키스탄 "피살 중국인 2명, 사업비자로 선교활동" 확인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 퀘타에서 지난달 24일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 살해된 중국인들이 사업 비자로 입국해 선교 활동을 했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밝혔다.

13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전날 내무부는 차우드리 니사르 파키스탄 내무장관 주재로 내무차관, 검찰총장, 이민국장 등과 회의를 열고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내무부는 "퀘타 진나 마을에서 납치, 살해된 20대 중국인 남녀 2명은 다른 중국인 일행과 함께 베이징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해 파키스탄에 들어왔지만 사업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현지에 사업체를 소유한 한국인으로부터 우르두어(파키스탄어)를 배우면서 선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들이 3-5명씩 조를 이뤄 길거리에서 현지인에게 기독교 선전 영상을 보여주거나 기독교 찬양을 부르고, 종교 활동에 현지인을 초대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니사르 장관은 "비즈니스 비자를 오용한 것이 무고한 중국인 2명의 납치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외국에 있는 파키스탄 공관에 비자 신청자들의 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외교부에 외국인 비자 발급 적절성을 담보할 새 가이드라인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중국인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재검토하고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중국인의 데이터를 구축해 치안당국이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파키스탄을 방문한 이들도 안전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활동과 이동상황 등을 당국에 제대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2015년 570억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건설이 발표된 이후 중국인은 다른 나라 국민보다 비자를 훨씬 빨리 취득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에만 중국인 7만 명에게 입국 비자가 발급됐다고 전했다.

5살 소녀, IS 납치 3년만에 엄마 품으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월드워치 모니터'는 IS에게 납치됐던 크리스티나 아바다라는 다섯 살짜리 소녀가 지난 9일 극적으로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고 최근 보도했다.

IS를 피해 지난 2년 동안 이라크 북부 아슈티 난민캠프에서 머물던 가족들은 크리스티나가 돌아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체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가족과 이웃들이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크리스티나의 무사귀환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주인공인 크리스티나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다.

크리스티나의 모친 아이다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티나를 둘러싸고 기뻐하는데도 크리스티나는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퍼붓지만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니네베 평원에 있는 기독교 도시 카라코시(Qaraqosh)에 살던 크리스티나는 2014년 8월 22일 IS에게 납치됐다. IS가 진격해올 때 크리스티나 가족은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크리스티나의 부친이 맹인인데다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티나 가족은 IS에게 자비를 기대했지만 IS는 그들의 희망을 저버렸다.

IS대원들은 크리스티나 모친 아이다에게 의료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크리스티나 가족은 IS대원들에게 돈과 금, 옷, ID카드 등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건넸다.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아이다 무릎에 있던 두 살짜리 크리스티나를 데리고 버스에 올라탔다. 아이다는 딸을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IS대원들을 이끌던 사령관은 아이다에게 총을 겨누고 경멸의 제스처를 남긴 채 크리스티나를 데리고 사라졌다.

이후 몇 년간 크리스티나를 둘러싼 소문이 이어졌다. 살아있다는 루머도 나돌았지만 납치 1년이 넘자 가족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갔다. 아이다는 그래도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딸이 없는 생일상을 차렸다. 아이다는 당시 "크리스티나가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게 두려웠고, 딸을 다신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걱정됐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루터 종교개혁은 교회개혁 중심으로 사회개혁도 포함.. '두 왕국론'에 입각
교육은 만능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 교육이 하나님 대신 할 수 없어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공교육' 개념도 처음 도입 교과에도 적극 개입
대소요리문답서 제작, 성경에 근거한 교리교육으로 삶에서 실천하도록

교육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한다. 먼 날을 내다보면서 커다란 계획을 세울 때에 교육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한다.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분명하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다. 능숙한 전문인이 될 수 있다. 삶에 대한 철학과 세계관이 달라진다.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가 외쳤던 소리가 광야의 바람과 같이 잠시 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사상을 따르던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무엇이 그 무리의 생각을 개혁적인 마인드로 변화시켰을까? 교육이다. 루터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교육의 힘이 어떠한지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다. 자연히 종교 개혁을 위한 신중한 고민 중에는 교육에 대한 개혁이 그의 생각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교회의 개혁이 중심되었으나, 사회의 개혁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두 왕국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영적정부와 세속정부를 함께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루터는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넘어 학교와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질서와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방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치 방법이라고 확신하였다.

교회 교육

중세 교회의 긴 역사 동안 엄청난 신학 활동이 있었다. 수도원 운동의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세 신학은 평신도들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매우 사변적인 형태로 흘러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가톨릭교회 전통에 입각한 기본 교리를 평신도들에게 교육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대항하였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교회에서 실시된 교육이 매우 적극적일 수밖에 없던 것은, 이미 보편화된 기독교에 대한 전통과 인식을 개조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구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교회는 피교육자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임무가 있다.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잡혀있었다. 루터는 그들의 생각에 근본적으로 동감하였으나, 교육이 만능이 아니기에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경고하였다. 교육은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교육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없다. 루터는 교육 자체가 죄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배격하려 한 것이다.

가정 교육

교육의 대상은 성인과 어린이를 모두 포함한다. 어린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기에, 루터에게 어린이 교육은 그 누구도 회피할 수없는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이로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심각성을 공유하기를 원하였는데, 교회에 어린이들을 맡긴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으려 한 것이다.

인간은 모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지만,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하여 매우 순수하다. 어린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드린다. 그들의 중심에 심겨진 믿음의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지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성의 발달과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진다.

루터는 순진하지만 학습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루터는 반드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육의 시작은 어릴수록 좋다. 청소년시기가 되면 성인 이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원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시며 그들을 바로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위탁하셨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중요한 과제에 충실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터의 가정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개념이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며 양육한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루터는 그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자녀를 말씀에 근거하여 교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와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기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 교육

루터는 평생 교육에 몸을 담았다. 1512년부터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서 평생 교수 사역에 헌신하였다. 그는 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학교 교육을 맡아왔다. 그러나 루터는 도시와 군주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위 '공교육'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이다.

1520년에 저술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이란 논문집을 통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독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교육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교황청이 교육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며, 반드시 귀족들이 이 일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루터가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하려 한 것은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한 과목들을 통해 신앙에 유해한 내용이 교육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속 영역의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을 키워내려면 그들에게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세속 통치자들에게 복음에 입각하여 젊은이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의 교과를 정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형이상학, 영혼에 관하여, 윤리학 등을 폐기하고, 논리학, 수사학, 시학 등은 남겨두었다. 나아가서 루터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 영역과 수학과 역사 과목을 중요시 하였다.

루터의 개혁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그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장래 사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중에 학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재물을 희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확고한 그의 교육 개혁은 비텐베르크 대학을 시작으로 향후 독일 전역 뿐 아니라 유럽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퍼져나갔다.

신앙 교육

루터의 종교 개혁이 후대 교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개혁사상에 기초한 교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1529년에 "소요리문답서"와 "대요리문답서"를 제작한 것이다. 그는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가 바라고 기대하였던 것은 성경과 문답서를 병행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되는 경험하는 것이었다.

"소요리문답서"에는 십계명, 주기도문, 신앙고백과 함께 몇 가지 실천적 내용을 담았다. 신앙을 위한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였다. "대요리문답서"는 "소요리문답서"를 학습한 자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았다. 십계명, 주기도문, 신앙고백 등을 반복하여 수록하였고, 세례와 성만찬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신학적 해설을 첨가하였다.

루터의 "소요리문답서"와 "대요리문답서"에는 후대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의 종교 개혁 사상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개혁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중세 로마 교회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개혁을 주도하였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중세 교회는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갔다. 루터는 그 성경을 다시 찾아다가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신앙 교육은 교리 교육을 포함한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된 종교 개혁은 성도 개인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파워를 지녀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숙해 나간다. 이 과정을 완수하기 위하여 올바른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단시간에 교육의 효과를 보려하기보다, 멀리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covenantcho@yahoo.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리더십 코멘터리 (44)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봐야 할 것들

새 리더십의 요구조건: 정보 변화의 수용, 권한위임과 역할분담, 관계적 접근과 협동체제 구축, 변화 따른 다양성 추구 '영향과 지원' 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인간적 완성도 높아야

지금은 환경을 탐색해야 할 중요한 순간

39세, 46세, 41세, 42세. 세계 정치를 이끄는 리더들의 나이를 가리키는 숫자이다. 국제사회를 이끄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39세),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46세), 그리고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41세), 벨기에 샤를 미셸 총리(42세)가 그들이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나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아일랜드에서는 이들보다도 더 젊은 서른여덟 살의 총리까지 탄생했다. 전 세계가 한마디로 '젊은 리더십'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리더십(Leadership)이란 모든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공동체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금은 내일과 미래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급변하는 환경을 탐색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모두가 와 있다.

리더십 패러다임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구태의연했던 리더의 표준들이 사라지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갈등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은 비효과적이므로 새로운 리더십의 접근이 필요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안정과 통제를 중심으로, 물적이고 획일적이며 경쟁적인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에 따른 변화의 수용, 대폭적인 권한 위임과 역할 분담, 인간적 그리고 관계적인 접근과 협동체제 구축, 변화에 따른 다양성의 추구 등이 새로운 리더십의 특징이다.

기존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권력과 통제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은 영향과 지원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사회공동체 속에서의 미래 리더십의 방향은 밀실 속에서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지시와 명령보다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주며 자신의 일을 통해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유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구시대적인 권위만을 내세우는 리더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시대가 되었다. 강요보다는 격려하고 그들의 독립적 사고와 행동을 자극하는 리더가 부각되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 미래의 리더는 감시와 감독보다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 성공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자기 검토와 자기 평가를 통해 격려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돕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리더의 자질을 다시 묻는다

리더(Leader)란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의미하는바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리더가 타인들을 배려하며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존경을 받아 뜻을 같이하는 무리들이 많아질 것이다. 리더가 받는 존경을 통해 리더십은 진정한 힘을 갖고 탄력을 받아 더 큰 영향력으로 교회와 사회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리더십(Leadership)이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협동시키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리더의 작용이다. 어떤 면에서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자아냄이 없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술 및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영향력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분담하고 있는 집단성원들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도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와 사회공동체의 내일과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다시 물어 보아야 할 때이다.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자질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후천적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감성능력(Emotional Intelligence)을 지닌 리더가 되라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능력이 아닌 감성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지식이나 기술이 풍부하다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내일과 미래의 리더는 인간적인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 리더의 감성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자기감정 인식: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특징에 대한 반응으로서 가치판단 없이 단지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말한다. 리더는 끊임없는 자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흐름을 파악하고 심리적인 통찰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자기감정조절: 자기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리더는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③자기 동기부여: 자신을 동기화 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리더는 어려움에 직면해도 좌절하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와 바른 신념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낙관적인 태도로 자신을 동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타인감정인식: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어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타인의 중요한 사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힘을 말한다. 리더는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태도와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대인관계능력: 타인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리더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인을 움직여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고 내일과 미래를 짊어진 리더들에게 요청되는 행동철학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과정에 도전하라. ②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라. ③다음 단계를 위하여 동료들의 행동을 유도하라. ④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모델화하라. ⑤구성원들의 용기를 북돋워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라.

지금은 교회리더십 상실의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떤 경우에 리더십은 치명적으로 실패하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흩어지는가?

첫째, 지혜자의 충고를 멀리하면 리더십은 실패한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실력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성공 아니면 실패로 결론이 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든지,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든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방적이고 경직된 리더십은 실패한다. 구성원들을 껴안지 않는 경직된 리더십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든다. 이른바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동체구성원들의 마음에 냉소주의가 박히면 마음이 흩어진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쫘악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리더십은 성공하는가? 사람들은 언제 리더를 따르게 되는가? 리더가 이끌어가는 교회나 사회공동체의 의사소통이 수직적 일방적이 아니라 민주적이며 쌍방향이 되어야 성공한다. 또한 리더의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고,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러면 흩어진 구성원들의 마음이 다시 리더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교회가 리더십을 많이 상실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다.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성도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런가? 교회가 아직도 일방적 리더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속에 제왕적 리더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섬김의 정신으로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한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가?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철저하게 성실함으로 신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리더십 패러다임이 철저히 바뀌어야 할 때이다.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은 리더십이 결핍되어 교회와 사회공동체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리더인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고난이 효자입니다-다윗 묵상(3)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시18:1, 35).

비록 약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 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니 주님이 승리케 해주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고 멸시를 많이도 받고 흠모할 만할 그 아무 것이 없어도 제게 그런 조건이 없음으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 안에 다윗같이 부족하여 주님만 꼭 붙드니 과연 주님께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시더라구요~ 하고 만방에 주님의 행사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이 보여지는 눈을 주신 것부터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어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 덕에 내 손길 닿는 곳에 행복이 온다면 백번 고난은 화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쫓는 사울은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루고 쫓기는 다윗은 잠자는 사울의 옷 귀퉁이를 사울에게 베어 보여줄 만큼 인격의 여유를 보입니다.

고난가운데 다윗에게서 졸렬한 사울의 성정이 빠져나가고 너그러운 반면교사의 열매가 다윗 안에 들어옴을 보고 깊히 배웁니다.

약함을 능히 알고 주님만 의지한 덕에 나를 주님의 일꾼 삼으셨으면 그저 감사함으로 어느 누구든 심정으로 섬길 지혜와 넉넉함을 철철 부으소서~

나누는 것에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마음도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더욱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렵니다. 다윗의 시원한 일편단심 믿음을 제게도,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모두에게 덮입도록 은혜의 눈을 크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드,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규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블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 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목회서신

아버지의 날(Father's Day)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아버지의 날은 미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9년에 워싱턴 스포케인(Spo kane, Washington)의 소노라 스마트 도드(Sonora Smart Dodd)부인이 어머니날 설교를 듣다가 아버지날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도드 부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다섯 자녀를 키운 아버지 헨리 잭슨 스마트(Henry Jackson Smart)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기 위해 1910년에 아버지가 태어난 6월 19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해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와 YMCA 등을 중심으로 지켜왔던 아버지의 날은 1924년에 켈빈 쿨리지 대통령(President Calvin Coolidge)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여 공포했습니다. 1926년에는 뉴욕에서 아버지의 날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56년에는 미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President Nixon)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날'(5월 둘째 주 일요일)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념일로 취급되고 있으며, 아버지날의 꽃은 장미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빨간 장미를, 돌아가셨으면 흰 장미를 가슴에 다는 것이 풍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을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에 이릅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9월 6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해 특별한 행사를 갖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든 한 가지씩 하는 것을 관습으로 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3월 19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해 자녀들이 케이크나 음식 등을 준비해 아버지와 함께 즐기면서 넥타이나 열쇠고리 등 작은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1992년부터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좋아모)"를 중심으로 5월 1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고, 올해의 아버지를 선정, 수상하는 등 작은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6월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한국에서 '아버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물론 혹자는 말하기를, "언젠가 좁쌀 같은 남성들이 모여 '어머니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날'은 없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이후 '어머니날'은 '어버이날'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권위주의적 한국의 남성문화"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국제적인 세계화의 흐름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자는 말하기를, "어머니날은 한 날을 정하여 지키지만, 아버지날은 1년 365일이 모두 아버지날이라고 할 수 있기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지킬 것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입니다.

'어머니의 날'은 있는데 '아버지의 날'은 없다고 하여 얼렁뚱땅 땜질하듯 '어버이의 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버지의 날'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날'을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던 미국의 관례를 거울삼, '어머니 날'은 전과 같이 5월 8일로 하고, '아버지날'은 현충일(6월 6일)을 피하여 6월 중에 한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면 좋겠다고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그래서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거꾸로 된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짐으로 가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일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화 운동으로 전개됨으로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RCA 한인교협 총회장에 김종윤 목사

2017전국총회... "한인교회들 단합계기 제공 노력"

RCA 한인교회협의회 전국총회가 6월 6일부터 9일까지 미시간 주 홀랜드 소재 호프 칼리지에서 열려 RCA 뉴저지교협 회장 김종윤 목사가 전국 총회장에 선출됐다.

RCA 한인교회들로 구성된 전국총회는 맨해튼에서 시작돼 교단 신학교인 뉴브런스윅신학교가 있는 미동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인교협 전국총회에는 뉴욕, 뉴저지(동남부), 중남부, 서부 등 4개 지역 한인교협이 있으며 한 지역이 전국총회장을 맡으면 다른 3개 지역 회장이 부회장이 된다.

따라서 뉴욕은 박준열 목사, 중남부 지역은 김성회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전국 총회는 한인교회 목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년과 같이 RCA 아시안 교회들이 모임도 진행됐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RCA 교단의 총회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돼 한인 목회자들은 합창단을 구성, RCA 총회에서 헌금 특송을 하기도 했다.

김종윤 목사는 "이번 전국 모임을 통해 RCA내 한인교회들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기내 한인교회들이 잘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 내년 초에는 전국수양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각 지역교협들의 상황도 나누고,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많기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총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역교협의 단합이 필요함으로 지역 교협들이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뉴저지 한인교협이 만든 RCA 배지 5백여 개를 배포했다.

RCA 2017 총회에서 한인총회 회원들이 김종윤 목사 지휘로 헌금 특송을 하고 있다.

김종윤 목사(예수드림교회 담임)는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으며 그의 셋째 형인 김종훈 목사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12일 저녁 열린 RCA 2017 총회는 RCA 표준문서이자 헌법의 일부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하는 것(marriage is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을 확인했다.

RCA에서도 다른 미국의 교단과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이 가능하도록 헌법이나 규례를 바꾸기 위한 시도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이번 투표결과 찬성 181명(82%) 대 반대 41명(18%)으로 나타났다.

〈정리: 유원정 기자〉

시드인터네셔널 국제대표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최선 다해 충성"

시드인터내셔널 국제대표 신임회장 권영복 목사 취임

시드인터내셔널 국제대표 취임예배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장세균 선교사(국제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손상웅 목사(시드 연구실장)가 기도했으며 고 이원상 목사의 삶과 사역에 대해 영상소개가 있었다.

이어 김재열 목사(국제이사장)가 호세아서 1장 10-11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재열 목사는 "고 이원상 목사님을 생각하면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는 권영복 목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나라 선교를 새 대표가 앞장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안일한 것을 지키기보다 영적 공동작전에 나가 주님오시는 날까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시드 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류응렬 목사(국제부 이사장), 이상웅 선교사(선교사 이사)가 축사했다.

권영복 신임대표는 "이원상 목사님께 지도받으면서 근 20년간 자랐다. 좀 더 준비가 되서 회장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하겠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사역하면서,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드선교회와 신임대표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

이날 취임예배는 권영복 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애국목사연합회 네트워크 출범

회장 김종권 목사, 사무총장 정명희 목사

미주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 및 법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기도하는 목사들의 애국단체 '미주애국목사연합회'(KAPCNIA, Korean-American Patriot Clergy's Network In America)가 지난 5월 31일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를 비롯,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하와이,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8개주를 연결해 발족됐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를 슬로건으로, 애국목사 1백명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해 기치를 올린 '미주애국목사연합회'의 회장에는 김종권 목사(GA, 조지아해병목사회 회장)가, 사무총장에는 정명희 목사(NJ, 한국국가기도 미동북부 대표)가 앞으로 동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발기인이자 공동회장으로 김영구(LA), 브랜든 송(LA), 박상수(NY), 현영갑(NY), 김종태(NJ), 박정희(NJ), 최중찬(GA), 엄두섭(GA), 어태용 목사(GA) 등의 임원들과 각 지역 11명의 고문, 21명의 자문위원, 58명의 운영위원들이 단체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운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회장 김종권 목사는 단체창립의 취지에 대해 "우리 미주의 애국목사들은 결코 용납하기 힘들었던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반년 넘게 이어진 조국 대한민국의 상반된 이념적 혼란과 국가적 불행을 겪으며, 하나같이 애국목사를 자천하며 마음을 합해 애국의 마음을 심령에 뿌리 내리고 기도해왔으나, 이제 조국 대한민국에 새로이 세워진 정부의 안보와 법치를 위해서도,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미주의 애국목사들이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활동하는 애국단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주 전 지역으로 회원들의 가입을 확대해 나가며 활동할 동 단체는 회원의 가입자격을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조국관이 뚜렷하고, 종북주의를 배격하며, 애국심이 투철한 목사"로, 또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주최초의 각 지역을 잇는 애국목사들의 순수한 네트워크 상설기구로서, 초교파 및 초교단적인 비정치,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가입문의는 KAPCNIA@gmail.com (678)357-2359(회장), (917)817-3883(사무총장)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애국목사연합회〉

2017년 가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모집학과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학부(B.A.)/대학원(M.A.)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영화음악
경영학
학부(B.A.)/대학원(M.B.A.)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유아교육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SL
ESL I-20/ Certificate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학부(B.A.)/대학원(M.A/M.Div.)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팀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TRACS ABHE BPPE NCCAA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뉴욕국악축전"

6.25 상기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뉴욕국악축전"이 6월 25일(주)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국악합창 "새 하늘과 새 땅"과 피스 월드전통오케스트라(지휘 이춘승)가 공연되고 국악인 한정하, 김묘선, 한국전통 앙상블 고래야와 뉴욕의 합창단 및 어린이합창단, 취타대, 사물놀이 등이 출연한다. 티켓은 VIP 100달러, 일반 30달러.

▲문의: (646)808-7272, (718)414-4848

뉴욕 한국요양원 자원봉사자 모집

뉴욕 한국요양원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청소년들이 20시간 이상 봉사하면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봉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516)572-1649, 572-1541

반주자 초빙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가 반주자를 초빙한다.

▲문의: (718)461-2810

뉴욕농아인교회 일일찻집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가 6월 2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일찻집, '원데이 카페'를 연다. 장소는 뉴욕농아인교회(플러싱 파슨스블러바드와 윌렛포인트 코너).

▲문의: (917)991-0703

강사 요청 "새사람을 입으라" 주제 변경 가능성

뉴욕교협, 2017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관련 기자회견

뉴욕교협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7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교협이 임시총회 등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할렐루야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할렐루야대회로 인해 교협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행사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 사회로 김영환 목사의 기도 후 대회장 김홍석 목사 인사와 언론사 소개, 총무 임병남 목사가 대회 방향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병남 목사는 임시총회를 언급하며 "모든 행사를 숫자로 평가하지 말라"며 "개혁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이번 회기에 개혁의 스타트를 한 것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뉴욕교협 준비위원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

임 목사는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계획했으며 진행 가운데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고 밝히고 "첫째, 강사 선정에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 강사가 후원비를 내던 전례를 없애고 돈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재정적 문제는 광고비 감축, 장학금 및 선교비 지원 등의 재정축소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교협은 이날 조직을 발표하고 △대회장 김홍석 목사 △부대회장 이만호 목사, 이상호 집사, 강영규 장로 △행사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 △부준비위원장 김영환 목사, 전희수 목사, 장경혜 목사, 이준성 목사, 정순원 목사와 행사준비위원으로 황태연 목사 외 20명을 선정했다.

또 실무진으로 임원중심의 기획팀과 홍보팀(후원/동원) 행사팀(집회 진행) 등 3팀으로 나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회 주제인 "새사람을 입으라"(엡4:21-24)가 강사의 요청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홍보팀은 14개 지역별로 전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할렐루야 2017 뉴욕복음화대회는 7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며 강사는 정성진 목사(광성교회 위임목사)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가 배성현 목사 출판감사예배와 겸해 드린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목회자를 위한 은퇴준비'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2017 첫 단기선교팀 출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7 단기선교팀 중 첫 팀인 카자흐스탄 팀이 지난 8일 출발했다. 15일까지 1주일 일정인 이 팀의 이번 사역은 담임 김성국 목사가 동행, 신학교 세미나와 전도폭발, 일대일복음 사역을 하게 되며 또 네일아트 등을 통해 전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17 단기선교는 니카라과(7월14-23일), 캄보디아(7월12-22일), 온두라스(7월15-22일), 온두라스 실버(7월22-29일), 인디언보호구역(7월21-29일), 중국(7월 23-8월 2일), 인디아(7월 28-8월 7일), 에티오피아(8월4-19일), 할렘(8월 29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사진은 출발에 앞서 팀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유원정 기자〉

씨존, 스마트폰 중급반 강의 시작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중급반 강좌(67기)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3주간에 걸쳐 열린다.

초급반을 수료했거나 스마트폰으로 업무 또는 복음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중급반 강의 내용은 다양한 카톡 중급기능 활용법, 인터넷, 주소, 앱 다운로드받기, 신문/TV/유튜브/방송듣기, 성경 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

강의는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후원한다. 수강자는 스마트폰 강의 DVD를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8)414-4848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씨존〉

'성경적으로 시와 영감 있는 글을 쓰는 세미나'

뉴욕목사회 주최...배성현 목사 출판감사예배 겸해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최한 '성경적으로 시와 영감 있는 글을 쓰는 세미나'가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뉴욕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성완 집사와 전항 목사의 찬양 후 김상태 목사 인도로 기도 한재홍 목사, 특송 전항 목사부부, 설교 송병기 목사, 축사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2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23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며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 인생에 잔이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현 목사의 시집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출판감사예배와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 배성현 목사는 "우리는 '십자가 탐험대원'들이다"를 외치게 하고 1. 붙들고 되새기는 성경, 2. 왜 성경적으로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가? 3. 어떻게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4. 책을 쓰는 방법, 5. 시와 글쓰기 팁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목사는 자신의 시 작성 실습 노트를 보여주며, 글 쓰는 목적과 글쓰기 현장, '예수! 예수! 예수!', '가정예배 드리던 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시집이 배부됐다.

배성현 목사는 총신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뉴브런스윅신학교(기독교교육 전공, MA)를 졸업하고 Secaucus RCA 윌리엄 H. 헨켈과 이중문화사역을 했으며 2003년부터 국제교회갱신사역(PRMI)의 두나미스 코리아 한국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유원정 기자〉

'목회자를 위한 은퇴준비' 세미나

뉴욕목사회 주최, KCS & SYNCIS 주관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KCS(한인봉사센터, 대표 김광석)와 SYNCIS 재정컨설팅 팀과 함께 하는 '목회자를 위한 은퇴준비' 세미나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최호섭 목사가 강사를 소개한 후 KCS 김광석 대표가 "은퇴와 노인복지"에 대해, SYNCIS 크리스림 씨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김광석 대표는 △현금 △건강보험 △주택 △기타 혜택들 △연장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정신건강에 대해 설명했다.

크리스림 씨는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4%뿐이라며 △인플레이션 △컴파운드 △텍스 △리스크 등 4개 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복리이자의 강점 △텍스 어드벤테이지드 △CRT의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림 씨는 재정컨설팅은 개 교회마다 개인마다 맞는 플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감상태 목사 인도로 기도 한석진 목사, 성경봉독 박현숙 목사, 설교 허걸 목사, 축사 김홍석 목사(뉴욕교협회장),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허걸 목사는 "가난한 자의 축복"(마5:3-12)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부터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져야 한다"며 "세속의 눈으로 하나님나라를 보지 말라"고 말하고 "뉴욕의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지만 대책이 없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현명한 노후대책을 하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2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미주장신대, 월드미션대, 그레이스미션대

남가주 한인신학교 2017년 봄학기 학위수여식

남가주 지역 3개 한인신학교의 2017년도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6월 3일과 5일에 각각 열렸다.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미주장신대 37회 학위수여식예배는 3일 오전 10시30분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학생처장 박충기 목사 사회로 시작,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장 강신형 목사가 기도, LA노회장 강준수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김동영 학우가 특송 했다.

이어 서정운 전 총장이 '하나님나라의 겨자씨들'(마13:31-3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철 목사가 축도했다.

교무처장 구경모 박사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구경모 박사가 학사보고 했으며 이상명 총장이 목회학석사 김기찬 등 23명에게 학위증서수여를 했으며 시상, 그리고 격려사를 했다.

이어 기념품증정 시간을 가졌으며 교가 제창 후 마쳤다.

같은 날인 3일 오후 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 제 26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은 임성진 부총장 사회로 시작, 윤임상 교수(음대학장)이 대표기도 했으며 학사보고와 학위수여로 이어졌으며 이광길 박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목회학박사 이종임, 목회학석사 김금자 등 22명, 음악석사 윤은경, 기독교 상담석사 최남수 등 6명, 기독교상담학사 고지연 등 14명 등 총54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5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은 김현완 교무학장 사회로 시작, 최규남 총장이 '나는 누구인가?'(마5:3-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학위수여로 이어졌다.

학위수여는 선교학 박사학위에 김은정을 비롯 총3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수여에 이어 김병학 교수가 축사 및 권면, 조남국, 김알리아 졸업생이 답사했으며, 졸업생 기증전달과 공로패증정이 있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강서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학교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이광길 교수가 축도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학위수여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효사랑선교회 시니어대학 졸업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효사랑선교회 효사랑 시니어대학 졸업식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부설 효사랑 시니어대학(학장 남승우 목사) 제3회 졸업식이 지난 3일 놀웍 소재 미국제일침례교회에서 개최됐다.

박용일 목사 사회로 시작된 졸업식은 남성 2명, 여성 20명 등 총 22명이 졸업했다.

이날 졸업생 일동이 합창(지휘 한진영 사모)으로 '에델바이스, 희망의 나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불렀다.

졸업식 기도는 박희성 목사, 설교는 민승기 목사, 대학연혁소개 김영찬 목사, 졸업장 및 감사장 수여 남승우 목사, 축하메시지 및 상장수여 Ian Calderson(가주 57지구 하원의원), 졸업생 답사는 박금자 학우가 맡았다.

이어 Robert Lengley 목사(놀웍 제일침례교회)와 주창국 장로가 축사했으며 김영찬 목사가 축사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가주하원의원 특별상 전달이 있었다.

이어 찬양가수 허훈, 박수진이 특송했으며 양종석 목사(대양장로교회)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LA, 캐나다, 시카고...기자간담회서 협력 당부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가 LA 지역과 캐나다, 시카고에서 개최된다.

9일 오후 3시 미주 찬양집회를 위해 LA를 방문한 장혁재씨(소리엘/굿네이버스 나눔대사)와 금번에 새롭게 굿네이버스 미주 지역 한인데스크를 맡아 홍보위원으로 동역하게 된 김경호 목사가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랑나눔 찬양집회'를 소개했다.

소리엘 장혁재씨는 "찬양집회를 통해 가난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결연사업과 굿네이버스 미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입을 열며 "수많은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굶어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교회와 미디어가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장혁재 씨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 바로 샌디에고로 출발해 샌디에고 새소망교회(담임 양진영 목사), 한빛교회(담임 정수일 목사)에서 사랑나눔 찬양집회를 인도하게 되고 14일(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어 캐나다와 시카고 집회가 계획돼 있다.

장혁재 씨는 현재 나사렛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의 빈곤 국가의 아동들과 국내의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오던 중 2009년 굿네이버스의 나눔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새롭게 굿네이버스에 영입된 김경호 목사(홍보위원)는 "한국의 나눔 홍보대사를 초청하여 집회도 갖고 미주에 활동하고 있는 찬양사역자를 나눔 대사로 위촉해 활동을 넓혀갈 것이며 C2C(Church to Community)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가 지역을 입양하고 1대1 어린이 결연을 후원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지를 돕고 단기선교를 통해 지역의 변화와 복음화를 이룰 계획"임을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굶주림이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 협력사역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 구호개발 NGO다.

자세한 것은 www.goodneighbors.org 에서 볼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877)499-9898.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올림픽장로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설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오는 18일(주) 오후 4시에 드린다. 권태산 목사가 동사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문의: (213)387-1700

나성한인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부흥회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이승구 교수(언약교회 담임, 함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집회일정은 23일(금) 저녁 8시, 24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 25일(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15분.

▲문의: (323)221-9531

미주컴패션 나들이 행사

지구촌 곳곳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 미주컴패션이 오는 17, 18일 양일간 캠패션 주말나들이 행사를 어바인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개최한다. 17일 오후 6시 인기가수 션이 함께하는 '희망토크 콘서트', 18일 오전 9시 15분, 1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탤런트 차인표 씨의 간증집회로 진행된다.

▲문의: www.ilovecompassion.com

LA 영상설교아카데미…제11차 영상설교 세미나개최

제 11차 영상설교 세미나가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오전 10시-오후 3시 헐리웃효순장로교회(김동원 목사)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김석금 박사가 초청됐으며 △파워포인트 기초에서 고급까지 △원어 활용법 △영상예화 만들기 △52주 영상설교 자료 제공(구속사 중심) △최적의 목회자용 노트북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비 평생회원 50달러, 일반회원 100달러이며 원로목사는 무료다.

▲문의: (818)515-5731

11일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는 로렌 권씨.

한인가정상담소 자녀교육세미나

강사에 로렌 권, 안현미 카운슬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6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동양선교교회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9일 세미나는 "부모의 분노조절과 자녀와의 대화법"을 주제로 열렸으며, 학부모들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자녀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11일 세미나는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녀들의 발달 상황에 맞춰 성교육을 하는 법과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성교육을 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에는 총 90여명의 한인 학부모들이 참석, 자녀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인가정상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인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한인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 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점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탈교회 시대, 교회 혁신 위해 머리 맞댄다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 2題

'우리 시대 교회와 사회의 개혁과제는 무엇일까.''교회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와 목회자의 갱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구촌교회, 목회자 리더십 콘퍼런스 'GPS 2017' 목회 사역 핵심원리 공유

지구촌교회(진재혁 목사)는 오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채플에서 목회자 리더십 콘퍼런스인 'GPS(Global Pastors Summit) 2017'을 개최한다.

진재혁 목사는 8일 분당채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탈근대, 세속주의 시대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 운영되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탈 교회, 탈 신앙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동원 원로목사와 함께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할 성경적 설교와 리더십을 소개하고 지구촌교회의 사역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며 "단순한 목회 방법론이 아닌 사역 핵심원리를 제시하고 현장의 고민을 청취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3년 설립된 지구촌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대표적 교회로 4만여명이 출석한다. 목회자 자기계발, 다음세대 등 20개 워크숍은 외부 전문 강사와 평신도 리더들이 맡는다. 참가비는 4만원(미자립교회 목회자 및 신학생, 선교사 50% 할인)이다(gps.jiguchon.org).

동서신학포럼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학술대회 다양한 목회혁신 사례 제시

동서신학포럼(이사장 전영호 목사)은 오는 15-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 신학관과 서울 강남구 논현로 광림교회(김정석 목사)에서 5차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종교개혁 500주년: 과거로부터의 배움, 현재에 당면한 도전, 미래를 향한 대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한국 독일 스위스 미국 인도 필리핀 등 8개국에서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 등 20여명이 강사와 토론자로 나선다.

주요 강사는 김호기(연세대) 인골프 달퍼스(스위스 취리히대) 크리스토프 슈베벨(독일 튀빙겐대) 교수 등이다. 평생교육 다음세대 비즈니스공동체(카페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대회 운영위원장인 권수영(연세대 신학과) 교수는 8일 "이번 대회는 역사적 의미나 현대적 반성이 주를 이루는 신학자 중심의 학구적 발표와 토론의 틀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회 안의 다양한 혁신 노력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명 따라 직업 선택" 성도 4명 중 1명뿐

IVF 한국교회탐구센터 평신도 소명의식 조사

직업을 가진 한국교회 성도 4명 중 1명만 소명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는 연봉이나 적성, 이동거리 등 현실적인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회가 직업소명 교육과 의식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독학생회(IVF) 한국교회탐구센터(소장 송인규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양화로 미디어카페 후에서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재발견'을 주제로 제 7차 교회탐구포럼을 열고 평신도들의 소명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27일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23.3%만 직업 선택의 기준이 '소명'이었다고 답했다. 69.1%는 연봉이나 적성, 통근거리 등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현재 종사하는 일이 소명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67.0%, '그렇지 않다'가 31.3%였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소명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지만 일을 하면서 소명을 확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이 소명에 맞다고 답한 438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자 69.6%가 '일을 시작하면서' '일정기간이 흘러서'라고 답해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깨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1.3%는 소명을 확인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나 자신의 기도와 상황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직장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7.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28.2%는 '일과 신앙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신앙 수준의 부족'(21.1%) '업종이 성경적이지 않아서'(19.4%) '해봤는데 잘 안 돼서'(12.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앙인들의 직업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회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 중 58.8%는 직업 소명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있다고 답한 32.6% 중 85.5%가 도움이 됐다고 했다. 76.2%는 교육을 통해 어떤 직업이든 소명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응답자 가운데 40%에 가까운 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직업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직업소명 교육이 확대되면 직업에 대한 확신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평신도 신학을 주제로 강의한 송인규 교수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데 '맡긴 일'이라는 게 바로 소명"이라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 중요한 만큼 교회는 청년들이 직업적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응답자 중 60.8%가 목회자와 평신도는 직분에 따른 역할 차이만 있을 뿐 신분상 차이는 없다고 답했다.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인 만큼 신분상에도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5.3%였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거나 선교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3.9%와 69.0%가 '문제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평신도가 안수기도 설교 성찬집례 축도를 하는 것에 대해선 각각 56.7%, 60.8%, 69.3%, 64.9%가 '목회자가 아니라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교계, 퀴어축제의 도덕·보건적 폐해 적극 부각

내달 14-15일 서울광장 개최 앞두고 대응 논의

서울광장 퀴어축제가 올해도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 돼 동성애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알린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4-1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퀴어축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협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일간지에 반대광고 게재, 부스설치, 유인물 배포, 기자회견 개최, 홍보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반대 서명운동 등에 나서기로 했다. 20여명의 실행위원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홀리라이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에스더기도운동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한동협이 시민단체와 함께 퀴어축제 저지에 적극 나서는 것은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는 현상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다. 소강석 한동협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국민계몽 입법감시 언론소통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동성애의 이면에 숨어있는 윤리·도덕·보건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이 퀴어축제 때 20여개국 대사를 초청하던데, 국민대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80개국 대사를 초청해 다수의 국가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한국사회 안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퀴어축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만명의 '개미군단'이 상경할 것이다. 그 의분을 모아 한국사회를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규모 집회는 교회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유교 불교 천주교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력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교회는 2015년과 2016년 한동협의 전신인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수만명이 모여 동성애의 실체를 알렸다. 이날 한동협은 김수읍 목사를 상임회장에 추대하고 박요셉 목사를 공동사무총장에 선임했다.

"국민 통합 힘쓰는 기독교계 고맙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교회연합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국민 통합과 나눔 사역에 힘쓰는 기독교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교연을 방문한 이 총리는 "국무총리로 인준 받은 직후 왔어야 했는데 늦었다"면서 "기독교계가 국민 통합이나 정신적 안정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역에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책임이 클 텐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원만히 풀어 달라"고 답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총리는 집안의 신앙경력을 소개하며 "우리 집안 여성들은 다 권사고 남성들은 집사다. 저도 집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중앙교회에 출석하는 이 총리는 취임 후 첫 주일인 지난 4일에도 예배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신앙을 소개한 일이 있다. 당시 "2003년 외아들이 목숨을 건 큰 수술을 받았는데 가장 절박했던 순간 절대자께 간구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라는 생각을 한 뒤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이어진 대화에서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기독교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에 배석했던 교계인사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정부와 기독교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총리께서 밝히셨다"고 전했다.

이 총리의 기독교계 방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과 양홍석 윤창열 공보비서관, 김재원 종무실장이 동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교연을 방문한 직후 NCCK도 방문했다.

"MBC 탈동성애 인권유린 강력 규탄한다"

61개 종교 및 시민단체, 공개사과, 관련자 징계 등 촉구

61개 종교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위원장 강대봉 전국유림총연합 회장)와 건전신앙수호연대, 탈동성애인권단체 홀리라이프는 7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지난 5월 30일 방영된 MBC PD수첩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편과 관련,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대위 등은 성명에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위험 성행위이므로 국가는 동성애 폐해 예방과 함께 동성애를 치유하는 탈동성애 정책을 적극 펼치도록 권고해야 함에도 MBC PD수첩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MBC PD수첩의 탈동성애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공개사과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 정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동성애자들도 퀴어축제 반대하는데…

서울시, 시광장운영위에 책임 떠넘기고 행사 허용 움직임

동성애자들도 상당수가 시민의 공적 공간에서 벌이는 퀴어축제가 혐오스러우며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표결을 앞세워 퀴어축제 허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11일 동성애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I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들도 퀴어축제의 불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A씨는 '게이임에도 퀴퍼(퀴어 퍼레이드)는 혐오스러움'이라는 글에서 "같은 동성애자가 봐도 퀴퍼는 혐오스럽고 이질적이다"면서 "동성애 운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데 퀴어축제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 B씨도 "같은 성인 게이가 봐도 역겨운 것들이 많으니 일반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C씨는 "(퀴어축제에) 옷 벗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인권운동 하러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가"라고 반문하고 "직접 가봤지만 내가 보기엔 성적 판타지를 즐기는 듯 했다"고 꼬집었다.

일부는 자신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퀴어축제 준비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E씨는 "게이 인권이 퀴퍼한다고 나아진다고 보느냐"면서 "많은 게이들이 반대하는 데도 굳이 욕먹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F씨는 "게이는 아무데서나 노출해도 되느냐"면서 "말도 안 되는 특권의식, 억지 부리지 말고 노출증이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G씨도 "노출이 하고 싶다면 성인업소를 빌려서 하면 이런 비난은 없을 것이다. 왜 광장 같은 곳에서 그러는지 참 모르겠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H씨는 "애초에 도로에서 벗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공연음란죄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음란성과 불건전성 때문에 동성애자들조차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찬성 7표, 반대 4표로 퀴어축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광장운영위의 자문에 따르겠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장운영위는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광장운영위원 중 서울시의 김인철 행정국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정은숙 고문변호사, 이혜정 아동학대 전문위원 등 상당수가 서울시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광장운영위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창진 시의원(송파구)은 "지금 생각해보면 박 시장이 퀴어축제를 승인해 주려고 광장운영위에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애초부터 퀴어축제를 승인해 주고 싶었다면 박 시장 본인이 결정하면 될 문제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교회내 갈등, 청년들 역할 필요하다"

기윤실 토론회,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주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 평화다방에서 '새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눈길 끄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통합'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조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만 독점하고 있는 교회 내 갈등 구조와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면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손승호(37)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간사는 "인류사회는 갈등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갈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갈등이 위험하다는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 사회 구조의 주체로 편입되는 방편은 갈등이며 한국 청년들에게는 제대로 된 세대갈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운영(34) 청년연대은행 토닥 간사는 "갈등이 이슈화되는 현상은 소외된 이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하지만 교회 안의 발언권과 이로 인한 갈등은 오로지 장년 남성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회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당회 및 총회 내 청년 자리 보장, 장로제도 재검토, 사역자들 간의 불평등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원홍(서울 서문교회) 목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 갈등이 치열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상덕(29) 씨도 "그동안 교회에서 갈등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는데 나약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에 대한 제언도 잇따랐다. 손 간사는 청년들을 위한 교회 내 대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도덕적 차원의 가르침보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간사는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내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고 전했다.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는 "사회 내 갈등보다 교회 내 갈등을 다뤄보자는 취지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향후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얘기를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인 독립운동 숨겨진 역사 발굴한다

교계,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업·행사에 박차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연중 행사들이 중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2년 앞으로 다가온 3·1절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교계가 눈길을 돌리고 있다. 주요 연합기구와 교단마다 특별 기구를 꾸리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8일 임원회를 열고 크리스챤아카데미(원장 이근복 목사)와 함께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구한말부터 중국 옌볜 지역에서 반일 및 독립운동에 헌신한 역사를 집중 발굴하고 재조명할 계획이다.

이근복 원장은 11일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중국 옌볜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는 일반인들은 물론 교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추후 CBS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해 가려진 역사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윤경로 한성대 명예총장)를 꾸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YMCA 등 기독시민단체 등과 연대 활동을 펼친다. 남북종교인 공동기념사업 등을 구상 중이며, 3·1운동 정신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역사화할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3·1운동 유적지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9년까지 기미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해 일본 검찰에 송치된 명단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치만(장신대 역사신학) 교수는 "3·1만세 운동에 참여한 신앙 선배들을 추적해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 곧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는 지난 2월말 '3·1운동 100주년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 1979명의 명단과 활동, 징역 상황 등이 담긴 내용을 지난 4월말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선교의 창 (80)

한인선교의 5대 지향점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오늘 기독교 선교는 안, 밖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선교사 수가 줄어들며 교회의 선교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선교의 주도세력이었던 유럽은 이제 피선교지로 바뀌었다. 미국교회도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SVM 운동으로 선교가 활화산처럼 타 올랐던 그 때가 아니다.

한인교회는 어떠한가? 한인 세계선교는 20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사반세기 짧은 선교역사임에도 불국하고 한인 세계선교는 기독교 역사에 자타가 공인할 만한 발전과 성과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제는 한인선교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시적 성과 뒤에 가려진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파괴력 있는 한인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본부 사역 강화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전쟁에서 전략본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파송체로서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관리할 유능한 선교회가 필요하다. 이 본부사역은 거룩한 삼각관계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선교회가 선교사와 후원교회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며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전략 본부가 없거나 취약할 때 그 선교는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

본부 업무는 특수성, 전문성, 과중성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신임 선교사 발굴 및 훈련과 파송, 선교사 후원금 관리 및 모금, 선교사 관리 및 지원, 선교 전략 기획, 선교 회보 및 자료정리, 단기선교 팀 기획 및 진행, 선교 세미나와 선교대회를 통한 선교동원,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등이다.

유감스럽게도 한인선교는 본부 행정 사역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저 후원금 모아 선교사에게 보내주기 급급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개인이나 개 교회차원에서 나갔기에 아예 본부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관건은 본부 행정사역을 선교사 파송 이상으로 비중을 두고 지원하며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2. 선교의 주력부대

서구단체의 선교는 주류가 각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인선교는 목회자 중심 인력구조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인교회의 선교패턴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전문인과 목회자가 팀을 이룬 복합적 사역이다.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며 팀 사역을 이룰 때 사역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 선교흐름은 자비량 전문인 선교위주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어느 사회에 가도 신분위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비량이기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들은 창의적 접근지역에 보내도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다수를 단기간에 훈련시켜 보낼 수 있다. 단 전문인 선교사란 선교를 위해 자기 직업이나 전문성을 수단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현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사람 중심의 선교

선교사역을 하다보면 자칫 자기 왕국을 만들기 쉽다. 한곳에 정착하여 피 선교지민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자기를 의존하며 돕는 역할만을 하도록 안배하기 쉽다. 선교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해야 한다. 최초이자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원리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다. 바울선교의 특징은 결코 한곳에 정착하여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말씀으로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히 위임해주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갔다.

바울 선교사역을 현대 선교에 맞게 잘 정리한 사람은 랄프 윈터이다. 그는 선교사역원리를 4단계로 설명해 놓았다. 그 단계는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 참가(Participant)이다. 이러한 패턴을 따를 때, 피 선교지만이 발 빠른 성장을 하게 되고 사역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 중심의 사역이다.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 될 때 가장 건실한 선교가 된다.

4. 자립적 선교

중국 선교사였던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John L. Nevius)는 1890년 내한하여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미국인 젊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원리를 특강하였다. 그 내용이란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 자급(Self-support)이다. 이 삼자 원칙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독립정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스스로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 3자 원리는 한국교회에 적용되었으며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이론의 원래 주창자는 헨리 벤(Henry Venn)과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이다. 그러나 네비우스가 중국에서 21년간 선교한 경험을 토대로 자체 소화한 선교신학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는 현지인을 도울 때 이러한 자립적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물질은 현지인의 눈을 어둡게 하며 독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현지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주며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열악한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3자 정신 같은 자립원칙이 없을 때 현지인은 성장하지 못하고 종속적이게 된다. 나아가 선교의 재생산이나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나 선교사가 불의의 사건사고로 유고 시가 될 경우 선교사역은 닫혀 질 수도 있다.

세상의 전쟁은 문명을 따라 발달해왔다. 고대시대에는 평면 위에서 싸우는 2차원의 전쟁이었다. 근대 사업화 이후에는 3차원의 전쟁으로 바뀌었다. 오늘 정보사회는 4차원의 전쟁 개념이다. 현대전은 람보 같은 1인다역이 아니다. 다인1역으로 철저히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로서 팀 작전을 이루어야 승산이 있다. 영적 전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것은 시작부터 시, 공간을 뛰어 넘어왔다.

더욱이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실시간 세계의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하루 안에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구촌이 하나의 글로벌한 선교지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가 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10명은 된다. 따라서 선교지의 개념도 이제는 지역에서 사람중심으로 빠른 인식전환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연합적인 팀 사역이 아니고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맺는 말

어떻게 하면 한인 세계선교가 세속의 도전에 휘둘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전진할 수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바 이제는 각개전투가 아니라 본부를 중심으로 선교사와 교회가 거룩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력부대를 다수의 자비량 전문인으로 하자는 것이다. 사역에 있어서는 금권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 사역을 지양하고 사람중심의 일꾼을 키워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네비우스 자립정신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역과 국가 단체를 넘어서 가능한 선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 이제는 1인다역의 사역을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텐트밖에 칠 수 없다. 현지는 100개의 텐트보다 100층짜리 빌딩 하나를 요구한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사역은 특수성, 전문성, 과중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효율적 사역을 위해서는 거룩한 삼각관계를 형성할 때 이상적이다.
이는 선교본부를 중심으로 선교사, 후원교회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다.

'수억 명의 중국인, 신앙으로 회귀'

영적 부흥에 사로잡힌 중국

중국의 문화 혁명이 모든 형태의 종교적 표현을 억압한 지 41년이 지난 지금 수억 명의 중국인이 기독교와 같은 종교에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기독매체 CBN News에 따르면 '중국의 영혼들: 마오쩌둥 이후 신앙으로의 회귀(The Souls of China: The Return of Religion after Mao)'의 저자 이안 존슨은 6년 동안 '현대 중국의 가치와 신앙'을 연구했다. 그는 중국의 '종교 혁명'에 박차를 가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 또는 이른바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꼽았다.

존슨은 "중국 사람들은 새로운 도덕적 지침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치의 원천인 종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6년 동안 '오늘날의 중국의 가치와 믿음'을 연구했다. 그는 이 '종교 혁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동인은 미등록 교회 또는 소위 '가정' 또는 '지하'교회라고 밝혔다.

존슨은 대서양에 대한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공산당이 적어도 6000만명에게 권력을 행사했을 때 프로테스탄트 수는 약 100만명 증가했다."

지난 15년 동안 CBN 뉴스는 전례 없는 이 부흥에 대한 기록을 해왔다. 존슨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모스크, 사원의 수는 급증했으며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말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종교적 표현의 공간도 급속도로 커졌다. 중국 성도들은 오래 전부터 전통 도덕을 버리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모색하면서 열심히 종교를 붙잡았다."

CBN 뉴스가 언급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가 기독교 부흥을 촉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북동부의 한 지역에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전례없는 기도모임을 가져왔다. 몇 년 전에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 수백 개의 중국 교회가 연합한 전국 기도회로 바뀌었다.

중국의 기독교 전문가인 자오 샤오 박사는 중국의 도심 외곽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삼자 교회들 속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오 박사는 전 공산당원이자 무신론자였으나 성경을 읽은 뒤 개종했다.

"해정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길거리에 100m가 넘게 줄 서 있다. 심천에서는 매주 일요일 평균 5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다."

수십 년 전 중국 정부는 18세 이하의 남녀는 삼자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 자오 박사는 이러한 법이 최근 몇 년 동안 완화됐다고 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노년층의 교회 출석이 많았던 예전과는 달리 특히 대도시에서 많은 젊은 남성, 전문직 종사자, 유명인사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종교 부흥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존슨은 신앙 문제를 탐구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존슨은 자신의 저서에서 "수억 명의 중국인이 사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그들은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답변을 찾고자 종교와 신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수료자 10명, 9Unit 15명 선교사 파송

제 2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성료

제2회 PGM 선교사집중훈련이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필라 안디옥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훈련에는 미주지역과 네팔, 과테말라에서 20여명의 훈련생이 참여했다.

이번 집중훈련의 목적은 선교의 열정을 갖고 구체적 헌신을 기다리는 선교 헌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Here & Now 선교사 및 해외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 9명의 선교사를 배출했고 올해는 10명의 수료자와 9유닛(Unit) 1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PGM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집중강의 뿐 아니라 사역 현장에 들어가 직접 체험하고 전도실습을 하는 것이다.

올해도 △선교의 제4물결(호성기 목사) △하나님과의 1:1관계-QT(조상명 목사) △디아스포라선교 및 선교사례-히스패닉사역(양충언 목사) △Here & Now선교 및 선교사례-다민족교회개척사역(고대은 선교사) △지역교회내 Here & Now 선교사례(배현찬 목사) △전문인선교 및 선교사례-직장과 선교(현엽 선교사) △전문인선교사례-VBS/어린이사역/웨일즈 사역(John Park 선교사) △전문인선교사역소개(최한자 선교사) △전문인선교간증(전용대 선교사, 김효람 집사, 손혜나 집사, 안미자 집사) △지역교회중심선교(Jay Kim 선교사)의 집중강의를 비롯해 훈련기간 동안 매일 선교체험 및 실습이 진행됐다.

16일 저녁 8시에는 히스패닉예배에 함께 참여해 히스패닉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17일에는 어퍼다비(Upper Darby) 다민족교회개척 소개와 노방전도 실습, 18일에는 필라 도심에서 빈민사역을 하고 있는 이태후 선교사 사역지를 방문했다.

19일에는 다운타운에 개척한 시티 캠퍼스(City Campus) 사역 소개와 노방전도 사례간증을 현장에서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일에는 LCCC 기도원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PGM 전문인선교 사역소개 및 각 전문분야별(IT, 교육, 직장, 스포츠) 실제 사역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7일부터 20일 저녁에는 필라 안디옥교회 진행된 선교부흥집회에 참석했다. 17일에는 배현찬 목사(PGM 정책이사, 주예수교회 담임), 18일에는 김은범 목사(PGM 정책이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담임), 19일에는 호성기 목사(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21일에는 PGM 선교사집중훈련 수료식 및 파송식과 함께 필라 안디옥교회 단기선교 파송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필라 안디옥교회는 국내/해외선교 14곳, Here & Now선교 11곳, 총 25개 선교지에 410명의 단기선교 헌신자들을 파송했고, PGM선교회에서는10명의 수료자와 9유닛 1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

PGM 선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내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을 깨워 훈련해 마지막 때에 선교의 동력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선교지를 다녀와서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

2017년 샬롬 예루살렘 축제

2017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 오전까지 진행된 2017 Shalom Jerusalem Festival은 2013년부터 5년째 계속하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KCSJ(Korean Christian Shalom Jeruralem)라는 기독교 단체인데, 이번 행사를 위해 미국과 한국과 대만, 몽골, 러시아에서 한인들 봉사자들과 공연팀들 500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다.

마태복음 24:14의 말씀대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공산권과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시대적 사명을 한인들에게 맡기셨다고 믿는다.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한 백성을 들어 이스라엘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번 shalom Jerusalem Festival을 통해 에스클론 공연에서 1,000명의 유태인이 몰려왔고, 예루살렘 공연에서는 3,000명이 그리고 하이파 공연에서는 2,000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몰려와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이 행사를 뉴욕에서 진행했고 매년 1,500명-2,000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모였는데, 2017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한지 70년을 맞이하며 1967년 6일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지 50년째가 되는 희년의 해이고 또한 오순절이기도 한 5월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가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오순절에 통곡의 벽에는 유태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어 하나님께 메시야를 보내어 달라고 간구한다.

KCSJ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이방인과 유태인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요엘2장 28절과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로마서 9-11장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의 회복(알리야)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 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는 기독교단체이다.

우리는 시편122: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와 이사야 40:1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말씀에 근거하여 지난 2천년 가까이 나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세계적인 대부흥의 주역이 되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부흥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기위해 일하고 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분명 우리 한국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역사상 어느 민족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유태인을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위해 반 기독교단체인 야드레아킴이라는 정통유태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런 대형집회를 당당하게 열었던 민족은 그동안 없었다.

이는 분명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기위해 3시간 공연을 진행하면서 한국 전통민속인 부채춤과 각국의 전통결혼의상 전시 그리고 북, 장구, 탈춤 등을 포함한 사물놀이와 태권도 선교팀의 파워풀(powerful)한 무술시범을 하면서 공연이 절정을 향할 때, 룻기공연을 뮤지컬로 펼쳐가면서 3,000명의 관중들을 박수와 감탄과 눈물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하였다.

이방 여인 룻과 유태인 보아스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이제 유태인과 이방인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메시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한다는 메시지가 공연의 주제로 흐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유태민족을 학살한 십자군전쟁에서 십자군들의 행위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선언문 낭독"에서 모두들 감격하며 마지막엔 서로 얼싸안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는 감동의 페스티벌로 공연은 끝났다.

에스클론 공연에서는 KCSJ 미주대표 김인식 목사가, 예루살렘공연에서는 송만석 장로가, 하이파 공연에서는 박성규 목사가 각각 "회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대표 국회의원과 랍비에게 전달하였다.

공연은 주로 저녁에 진행되었고 낮에는 이스라엘 빈민층들에게 구제하는 긍휼사역과 나무심기,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과 감람산 교회에서의 뜨거운 오순절기도회 등으로 쉴틈 없이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모든 봉사자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누가복음 21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쓰임 받게 된 것을 한없는 축복으로 여기며 주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SEED ICMS 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의 일군을 양성합니다

선교사 가정을 위한
IN Christ
ICMS2017 in Northern Virginia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대 상 : 선교사 후보 및 선교 헌신자
장 소 : SEED 국제본부 14637 Lee Highway #206 Centreville, VA 20121
컬페퍼 기도원 13092 Major Brown Dr. Sperryville, VA 22740

일 자 : 2017년 6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등록비 : 일인당 $1,500/ 자녀일인당 $750 (6세이상)

ICMS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SEED 선교회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Serving the Local Church) 선교사를 양육하여 (Equipping Missionary Workers)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Evangelizing Nations)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Discipling National Workers) 하므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가진 북미주 자생 선교단체로 현재 37개국 140여가정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ICMS는 SEED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신자로 40일 전체훈련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Course 1: 2주 (6월 27일 – 7월 9일)
Course 2: 2주 (7월 10일 – 7월 23일)
Course 3: 2주 (7월 24일 – 8월 4일)
일부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강의

spirituality 영성 훈련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고 이원상 목사 DVD
말씀, 기도, 예배/ 권영복 목사
소명과 사명/ 조용중 선교사
하나님의 성품/ 김일호 목사
영적리더십/ 양춘호 목사
바울의 사역/ 류응렬 목사

Missionary Life 선교사의 삶
Father's Dream/ 이광진 선교사
관계훈련 및 관계회복/ 김재덕, 김진세 목사
영적전쟁/ SEED 선교사
Life Formation/ 서창권 목사
최신 선교학 동향/ 이은상 목사

Cross-Cultural Ministries 타문화권 사역
IMB 전략 연구소/ Jeff Waligora
선교와 문화/상황화/종교다원주의/ 백신종 목사
교회개척/ SEED 선교사
세계선교역사와 전망 그리고 SEED/ 손상웅 목사
사역철학 및 타문화 제자훈련/ SEED 선교사
SEED 전략/ 국제본부
SBN/ 김요한 선교사
위기관리/ 국제본부 위기관리팀장

SEED International 14637 Lee Highway #206 Centreville, VA 20121 등록문의 ☎ 703-586-8925 (국제본부), 562-926-4700 (미주서부본부) seedexecdirector@gmail.com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5)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9)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 이야기에서는 미국 교육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미국 교육의 실패를 가져온 원인을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공립학교의 등장과 공교육제도의 확립"이라는 말과 그 안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역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해당 교육 철학적 역동의 중심에는 존 듀이(John Dewey)의 인본주의적 교육철학인 실용주의 교육철학(Pragmatism) 혹은 진보주의 교육철학(Progressivism)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교육의 모습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존 듀이의 교육철학 등장 배경 및 교육철학의 내용, 또한 존 듀이 이후의 미국 교육계의 철학적 동향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실패한 미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이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존 듀이의 실용주의적 교육철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우구스트 콩트(Auguste Comte)는 자연주의 철학(Naturalism)의 영향을 받아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위 "사회과학"의 태동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콩트의 주장을 교육에 적용하여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 즈음 교육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고, 교육을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편입시킨 사람이 바로 존 듀이(1859-1952; John Dewey)였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과학적 인본주의를 추구한 듀이의 교육철학에는 그 첫 발단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분, 기독교적 신비에 관한 부분이 배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잠재성과 능력에 대한 무한 자긍, 무한 신뢰를 중심으로 그 교육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철학적 토대를 이미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육철학은 잘 알려진 바와 실용주의(pragmatism)라고 불립니다. 실용주의는 미국 버전의 자연주의(Naturalism)라 할 수 있으며, 실용적인 것이 곧 진리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듀이는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경을 포함하여 자연현상으로, 자연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매우 열심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듀이의 교육철학은 또한 진보주의(Progressivism) 교육의 효시로서 진보주의 교육의 내용적 뼈대를 세웠습니다. 진보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적 능력에 대한 무한 긍정 및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적, 경험적 학습방법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론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듀이의 교육철학은 성경적 인간이해와 상치된 인간이해를 전개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도덕성 훈련 및 기본적 학습력을 길러내는 것을 담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듀이의 교육이론이 소개되었을 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사회였지만 일부의 기독교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0세기 중엽(1944), 당시 시카고 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의 교수였던 듀이가 발의하고 진행했던 획기적인 프로젝트인 "시카고 대학 부설 실험실 학교(Laboratory School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프로젝트의 성공 때문이었던 듯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진보주의적 교육이론의 효과를 직접 학교를 운영하면서 증명해 보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전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관망자였다면, 진보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험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참여자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학업 기술 및 내용을 협동 경험을 통해 얻도록 하는 프로젝트 수업들을 위주로 하고,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하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학교 밖 생활에서의 기능들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매우 훌륭해 보이는 이러한 학교는 오직 하나만, 시카고 대학의 실험실 안에서만 가능하지, 그 외의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에 잘 적응할 만한 학생들을 뽑아서, 소규모 학급에서, 매우 능력 있고 열정적인 교사들과, 학생대비 많은 교사 수와, 풍부한 교육 자원과, 좋은 시설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긍심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진행된 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이 이상할 만큼 어드벤티지를 안고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잘 구현된 진보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성을 키워주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추구하였고,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때 미국 교육계를 풍미했던 진보주의 교육은 1950년대에 이르러서 그 영향력이 쇠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주의 교육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통제 및 훈련의 의미를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들었으며, 학생들의 입맛에 좌지우지되는 학교교육, 소소한 일상적 주제에 관심을 두려다 기본적인 학업력을 담보하지 못한 학교교육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삶과 관련된 주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다양한 교육방법론을 제시하고, 협동학습의 장점을 발견해내고, 학생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세우는 등의 장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에, 실용주의 및 진보주의 교육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용주의, 진보주의 교육은 확실히 미국의 교육 역사에서 기본적 학업력 성취에 실패하였으며, 목표로 삼은 사회적 변화를 일구어 내는 일에도 실패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듀이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교육은 인간의 선성 및 무한 가능성을 마치 절대가치인 양 주창하고, 진보의 불가피성, 실용의 필연성 등을 마치 진리인 듯 강하게 내세우면서, 기독교적 가치, 전통적 도덕성, 초월적 진리를 적대시함으로써, 사회의 불의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변화시킬 거시적 대안적 동력을 제시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사회의 불의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변화시킬 거시적 대안적 동력"이 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이의 교육이론은 실험실학교 성공으로 부각됐으나 1950년대부터 쇠퇴
진보주의 교육이론(학습자 중심)의 효시
기본적 학업력 성취 및 사회적 변화 이루는데 실패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삼하15:13)

다윗에게 수 십년동안이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즉각적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헤브론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왕과 같은 유다지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은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속에 상처가 되는 것은 많은 부분에 대인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들이 "좋다, 존경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할 때에 그것이 별로 믿을 것도 못되고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오직 신앙 안에서 서로 좋은 친구가 돼야 합니다.

화 일어나 도망가자(삼하15:14)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신합니다. 허겁지겁 피하는 것 같지만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특별한 친절과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은 늘 하나님의 종으로써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것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좋아하고 욕심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압살롬처럼 사람 마음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압살롬과 싸움이 붙었을 때 다윗은 유연하게 뒤로 물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위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수 궁을 지키게 하니라(삼하15:15-18)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할 때 후궁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이유는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실패를 만나면 크게 낙심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늘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뒤로 후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삼하15:19-20)

다윗은 피신하는 그 위험한 순간 중에도 가드에서 온 망명자들을 보살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성도는 내가 어려운 순간을 당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드 사람 잇대라는 뜻은 "가드에서 망명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려니까 잇대가 그의 동포들과 모두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너희들은 망명자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도망가는 나를 따르느냐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착하고 욕심이 없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삼하15:21-23)

본문은 가슴 뭉클하도록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따라오면 고생이 심할 것을 알고 잇대와 그의 동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옛부터 동거 동락하던 다윗의 사람들 6백명 모두 다윗을 따릅니다(18절). 6백명은 그 전에 다윗과 함께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잇대가 나도 다윗왕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그곳에 있겠다고 합니다. 잇대는 가드에서 망명을 와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 룻이 생각납니다.

토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삼하15:24-26)

본문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두 제사장 가문들도 모두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제사장 가문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고 다윗이 가는 곳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는 것을 싫어한 다윗은 그냥 조용히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감람산에 내려놓았을 때 다윗은 법궤를 도로 메어가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자녀양육,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한다!

처치리더스.컴, 자녀의 포르노 영상 대처를 위한 5가지 실제 방안 소개(상)

어린아이들조차 섹시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성생활을 하기 훨씬 전부터 (영화나 TV,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쉽게 접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성은 정상적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매체에서는 폭력적인 성적 이미지가 난무하는데, 성교육은 그저 책임감과 위험성을 강조하기에 급급하다. 성관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성교육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특히 포르노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의 성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심심찮게 십대 자녀들의 방을 노크 없이 들어갔다가, 후다닥 컴퓨터 창을 내리거나 닫아버리는 벌개진 아들과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상황을 공감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처치리더스.컴" 크리스천 부모로서 고리타분하지 않게 성의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자녀들을 위한 포르노 영상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5 Surefire Ways to Train Your Kid to Use Porn).

먼저 포르노 영상대처 방안을 나누기 전에 부모들과 같이 나눌 것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아들이 포르노에 빠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다. 아마도 이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부모들 대부분이 가진 문제는 포르노가 얼마나 서서히 아이들을 매혹시키고 중독 시키는지 잘 간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평생 포르노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 좋든 나쁘든 모든 행동에는 비의도적인 결과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 잔물결 효과는 발생한다.

둘째, "포르노 영상은 이성, 특히 여성의 육체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물론 여성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몸은 남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포르노에 대한 남성들의 문제는 마음의 욕구와 관련돼 있다. 포르노는 우선, 그리고 대부분, 마음의 극장과도 같은 것이다. 자신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곳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상공간이다. 비록 몇 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책임을 질 필요 없이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복의 공간이다.

포르노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은밀한 세계인 것이다. 이 욕구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내면에서 서식하고 있다.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내면의 작용에 대해 부모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욕망의 씨앗은 행동으로 옮길만한 나이보다 꽤 이른 시기부터, 성별과 무관하게 아이의 마음속에 심겨져 자라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중독이 된 한 사람의 삶이 죄와 죽음의 길로 빠지는 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포르노에 대한 욕망과 중독은 꽤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생각보다 일찍, 아이와 부모가 인지하기 전부터 포르노에 대한 교육이 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르노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의 성을 왜곡시키는 주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내면에서 서식...단기적 만족 지양 교육해야

자녀에게 포르노의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면 유익하다:

1. 사랑 없는 결혼생활

"모든 사람이 포르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다."

기독교 가정이라면 성적으로도 개방돼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좋게 보셨고 태초의 첫 커플인 하와와 아담도 그들의 성적인 측면에 대해선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성과 성관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비의도적인 결과물이긴 하지만 사랑과 로맨스가 없는 결혼생활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포르노와 같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적인 대상물과 비대상물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포르노 시청 훈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성적 욕구를 일으킬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성의 관심을 끄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사람들이 외모와 몸무게, 옷차림과 나이에 집착할 정도로 민감해지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과 포르노가 무슨 상관이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배우자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과 연결돼 있다. 남녀 간의 심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위험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특히, 서로 충분한 관심과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부부관계 안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사랑과 애정을 갖고 로맨틱하게 부인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배우자가 성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즉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부모의 이런 행동은 아이들이 텔레비전과 영화 등의 매체에 등장하는 이성과 비교하면서 "미(美)"의 기준을 성립하게 되고, 이목을 끄는 이에게 집중하게 한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미(美)"와는 전혀 다른 기준인데도 말이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갚진 것이니라"(벧전 3:3-4).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상대를 향한 마음이다.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자녀의 마음에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도구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때론 춤도 추며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모습들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된다.

2. 단기적인 만족

"사이버 여성은 쉽게 다운로드 되고 삭제될 수 있다."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소유하면서 자라난 소위 버릇없는 아이들은 포르노 시청 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포르노의 가장 큰 특징은 접속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바로 끌 수 있는 사이버 여성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면 바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 일평생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쉽다. 비단 포르노 뿐 아니라, 부모에게 말만 하면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바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아이는 기회가 닿으면 포르노에도 어렵지 않게 접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포르노를 볼 기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아이는 포르노에도 쉽게 빠져들게 된다.

"커버넌트 아이즈(Covenant Eyes)"에 의하면 기독교 남성의 50%와 기독교 여성의 20%는 포르노에 중독돼 있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료 포르노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 기업들의 매출은 50%나 감소했다고도 보도했다.

이 말은 지난 1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포르노에 접속하기 훨씬 쉬워졌다는 뜻이다. 포르노에 대해 짧게 생각만 스쳐도 인터넷만 있다면 포르노를 찾아서 보는 것은 너무 간편해졌다. 따라서 포르노를 보기로 마음을 먹은 아이는 매우 쉽게 포르노를 찾아서 즐길 수 있게 됐고 단기만족을 충족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단기만족을 취하며 살게 된다.

만약 부모들 중에 아이가 원하는 것, 사달라고 조르는 것을 다 사주면서 아이가 올바르게 크길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마치 얼굴을 땅에 파묻은 타조와 같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짚어주고 싶다.

〈다음호에 계속〉

"키 자라는 만큼 신앙도 자라길..."

〈1면에서 계속〉

안전사고 예방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여름방학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물놀이다. 저학년 아동들은 수영장 익사 사고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고, 체격만큼은 성인인 고학년 청소년들에게는 제트스키, 보트 등에 의한 물놀이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때 항상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선 예방

맞벌이 부부들이 여름 방학동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시간이 많은 여름 방학 동안 자녀의 행동과 태도가 이상해지는지 자녀를 꼼꼼히 관찰해야 한다. 갑자기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생활 패턴이나 복장이 눈에 띄게 바뀔 때 일단 경계심을 갖고 변화 실정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마리화나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지역에서는 아이들 대부분이 친구들을 통해 흡연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두 달 반이나 되는 긴 여름 방학동안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항상 좋은 롤 모델이 돼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어려서부터 지켜보면서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 하기 때문이다(Albert Bandura의 Social Learning Theory). 이때 아이들은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따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말로만 아이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결단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고후5:9-15 골 1:10).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겉으로만 하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동을 보일 때 진정으로 올바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진실 된 행동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따라서 할 것이다.